

출제요소

본문과 관련해 이야기의 전기적 요소(비현실적 요소- 무사가 수박으로 변하거나 아귀의 존재, 별세계의 존재 등)를 숙지한다. 설화의 일반적 특징을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지하국 대적 퇴치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설화는 소설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 갔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민담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신통한 능력을 지녔으며,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 이 민담의 창작 주체들은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고난이나 적대적인 요소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수와 아귀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에서 언제나 인간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민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비록 꾸며진 이야기지만 인간의 승리로 끝나는 구도에서 대리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다.

▣ 핵심 정리

■ 갈래 : 설화

■ 작자, 연대 : 미상

■ 성격: 전기적, 교훈적, 경세적

■ 주제

- 무신의 성취와 결혼
- 고난극복을 통해 지상국의 승리
- 위기 극복 노력과 과업의 성취
-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

■ 구성 : 영웅 설화의 구조

- 기 - 공주의 피납과 무신의 지원
- 승 - 산신령의 도움
- 전 - 아귀의 퇴치
- 결 - 하인들의 배신과 극복

■ 의의

-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한 유형이고,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보여 준다.
- 전기(傳奇)소설의 대표적인 소재가 됨.

★ 변신의 의미

이처럼 다른 것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민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이 동원된다. 이 점에서 '무신'이라는 인물도 보통보다는 우월한 인물임이 확인된다. 여기서 반동인물인 아귀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아귀 귀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사건 해결을 위한 복선

공주들은 구출되기를 바라는 구출대상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또 구출하는 일을 돕기도 한다. 구출대상자가 조력자가 되어 주인공을 도운다는 점이 다른 이야기에 비해 특이하다.

★ 사건의 해결

초월적 힘을 가진 반동 인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물리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늘은 특별한 힘의 원천으로서 서양의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에 나오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요소이다. 재는 사물(死物)의 상징으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졌다.

★ '지하국의 도적' 설화에 나타난 인간의 유형

이 설화에는 긍정적 인물로 무신과 공주, 임금님, 산신령이 있고, 부정적 인물로는 아귀 귀신과 하인들이 있다. 긍정적 인물은 밝음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며 부정적 인물은 어둠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어둠을 지향하는 인물들의 근거지는 땅 속의 깊은 곳에 있다. 이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는 이상한 바위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는 이 구멍을 경계로 구분되어 각각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둠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아귀 귀신은 이 구멍을 통하여 밝음의 세계로 나와 나쁜 짓을 저지름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데 이러한 밝음과 어둠의 양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긴장과 이완의 양면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인간은 밝음을 지향하는 측면과 어둠을 지향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밝음의 측면은 이성적 판단과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하지만, 어둠의 측면은 대상을 감성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따라서, 어둠의 측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스스로의 절제에 의하여 억압되고 축소를 강요당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의 절제를 잃었을 때, 이 어둠의 측면은 밝음의 세계로 튀어 나와 파괴와 부정이 횡행하게 된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유형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고전 소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설화가 소설의 앞선 문학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줄거리는 기타 여러 고전소설에서 비슷한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

'김원전(金圓傳)', '최치원전', '홍길동전', '금령전'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도적을 물리치고 여인을 구하여 같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같고 덧붙여지는 이야기만 약간씩 다를 뿐이다.

'김원전' 같은 작품은 이 설화를 확대 시켜 놓았다고 할 만하고, '최치원전'과 '홍길동전' 같은 작품은 이 설화를 부분적으로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설화가 소설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이 설화가 지닌 민담으로서의 성격

우리의 민담에는 지상과 대립되는 지하국이 나타나는 것이 많다. 지하국의 대적(大賊)이 지상의 중요한 것을 약탈하여 지하국에 숨겨 놓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지하의 대적을 퇴치하고 그것을 되찾아 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 역시 이러한 기본 모티프에 충실한 작품이다.

한편, 흥미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도 보편성을 보여 준다. 이 민담은 신화나 설화의 신성성과 진실성에 구애받지 않고 흥미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신화와 전설 속의 신이(神異)한 인물에 비해 보통의 능력을 지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혼인이라는 행복한 상황에 이르는 희극적이고 낙천적인 결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소박한 삶의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지하대적퇴치설화 개요

신이담에 속하는 설화의 하나. (괴물(혹은 독수리)에게 납치되어간 세 미녀)(금돼지(혹은 미륵돼지)의 자손 최치원) 등으로도 알려져있다. 이 설화 유형은 우리 민간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로, 그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인이 괴물에게 납치당함.
- ② 여인의 부모는 재산과 딸을 현상으로 용사를 구함.
- ③ 용사등장
- ④ 용사 혼자(혹은 부하와 함께) 여인을 찾아 출발,
- ⑤ 괴물의 거처를 알게 됨
- ⑥ 지하로 이르는 좁은 문 발견
- ⑦ (뱃줄을 내려 부하들을 차례로 내려 보내려 하였으나 모두 중도에 기권)
- ⑧ 우물가 나무위에 숨어 있다가 물 길러 나온 여인의 물동이에 나뭇잎을 뿌려 구원왔음을 알림,
- ⑨ 여인의 도움으로 괴물의 집 문을 무사히 통과.
- ⑩ 여인이 용사의 힘을 시험하려고 바위를 들어보게 하였으나 용사는 들지 못함,
- ⑪ 여인은 용사에게 '힘 내는 물'을 먹임.

⑫ 드디어 괴물 죽임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⑬ 납치되었던 사람을 구원.
- ⑭ 부하들이 무사를 지하에 남겨둔 채 여인을 가로채어 가버림,
- ⑮ 신령의 도움을 받아 용사는 지상으로 오름,
- 16 (부하들을 모두 처벌하고) 여인과 혼인.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닌 '지하국대적퇴치설화'는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아르네-톰슨에 의하면, 이 설화의 유형으로는 AT 300(용퇴치자), AT 301 (곰 아들), AT 303(두형제)와 같은 것이 유명한데, 랑케에 의하면, 유형 300은 368유화, 유형 303은 770유화가 채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3유형중 우리나라의 자료들은 유형 301과 매우 비슷하다. 유형 301은 (납치당한 세 명의 공주)로도 알려져 있어 명칭부터가 우릿 설화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예에 서는 흔히 세 명의 원님 딸 혹은 부잣집 딸이 납치된다). 사실 이본에 따라 조금씩 세부적인 차이점은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자료들은 유형 301의 전파임이 틀림없다.

■ 줄거리

옛날 지하국에 사는 아귀(餓鬼)라는 도적이 지상 세계에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잡아갔다. 한 무사가 공주를 구출하겠다고 자진해 나섰다. 그러자 왕은 공주를 구하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지하국의 입구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지하국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다. 입구에 다다른 무사는 부하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광주리를 타고 지하국에 이르렀다. 세 공주 중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가 무사를 만난다. 무사는 수박으로 변하여 아귀의 집으로 들어갔다.

세 공주는 아귀에게 독주를 권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고,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옆구리의 비늘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다. 무사는 세 공주를 지상으로 올려 보냈으나 부하들이 무사는 울리지 않고 그대로 궁으로 돌아갔다. 지하국에 남은 무사는 처음 나타났던 산신의 도움으로 말을 타고 무사히 지상으로 나온다.

한편, 궁궐에서는 부하들이 공주를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들이 구한 양 거짓말을 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공주들도 자신들이 살아오게 된 기쁨에 무사에 관한 일을 잊고 있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무사가 나타나 자초지종을 고하자 왕은 크게 노하여 부하들을 죽이고 막내딸과 무사를 결혼시켰다.

▶ 구절 풀이

- * 아귀귀신 : 율법을 어기는 악업을 저질러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귀신.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린다고 했다.
- * 국록(國祿) : 나라에서 관원에게 주는 녹봉(祿俸)
- * 어떤 때 아귀 귀신이 - 납치하여 갔다 : 아귀 귀신이 공주를 납치해 간 것은 우리 삶에 던져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삶 앞에 던져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이야기는 그 해결의 과정을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여기 등장하는 아귀 귀신은 보통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옛날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 광주리 : 광주리 이야기는 지하국이 우리 삶의 공간과는 다른 층위에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인공 스스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행위를 통해 그의 비범함을 드러내기위한 삽화라는 점이다.
- * 지하국 : 지하국을 신비한 세계로 설정한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 * 그 사람은 조금 내려 가자 - 무신 자신이 내려가기로 하였다. : 세 사람이 차례로 내려갔지만 실패한 다음 무신 자신이 내려간다. 여기서 세 사람이 내려 가는 일의 '셋'이라는 수효는 별 의미가 없다. 모두 실패하지만 주인공은 해낸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과정은 압축적으로 야기되고 만다.
- * 아귀 귀신은 마침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다.: 설화에서는 이처럼 '마침', '뜻밖에도' 등의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이 이야기에서 아귀귀신'이 이 때 마침 몸이 불편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이는 인과적 필연성보다는 우연성의 요소가 강한 설화의 특징을 반영한다. 설화는 플롯 전개와 필연성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성에 의한 전개와 해결도 흔히 이루어진다.
- * 임금님은 하인들을 - 결혼하게 하였다 :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무신과 막내 공주의 결혼은 아귀 귀신을 물리친 결과로서 이 이야기 전체의 중심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하인들을 죽인 것은 위선적인 악의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출제요소

작품의 이야기 구조(인물 소개-출신, 이름→행적)와 교화적 목적을 숙지해둔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김천 작품해설

[핵심성리]

- * 갈래 : 효행록.김천속모
- * 성격 : 유교적.교훈적
- * 배경 : ▶시대적/고려 때
- ▶공간적/고려 명주(지금의 강릉)와 몽고(원나라)
-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 주제 :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행
- * 특징
 - 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삽화와 함께 실린 이야기이다.
 - ② 국가의 무능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여준
- ★ [작품의 궁극적 의도는 아님]
- ③ 시간적 공간적으로 순차적 진행으로 이루어진 작품
- * 의의 : 유교의 기본인 충.효.열의 본보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했다.

[주요인물관계도]

아버지(김종연) 어머니

- 호장 관직
- 강릉의 유지

어머니

- 현모양처,유식한 여인
- 호장 벼슬의 김자릉의 딸

김천의 아내

- 축선 땅, 고진사의 둘째 딸
- 현명하고 조신한 처자

김천=아명(해장)

- 용모가 뛰어나고 풍채가 좋음

덕린

- 김천의 동생
- 어머니와 함께 몽고군에 납치되어 감

혜랑

- 객사 유씨 외동딸
- 해장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귀국할 수 있게 도와 줌
- 마지막에 덕린과 함께 고려로 도망 옴

■ 부차적 인물군

- ▶ 김순: 정선에 사는 김천의 친구,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 줌
- ▶ 습상: 몽고에 장사하러 다니는 무역상. 김천의 어머니 편지를 가져옴
- ▶ 효연스님: 김천이 몽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 효자: 효연스님의 형, 사신으로 몽고를 왕래
- ▶ 유씨: 몽고인, 객사를 운영 김천이 머물면서 도움을 받음
- ▶ 공명: 몽고에 사는 고려사람,충연의 소개로 김천에게 통역 도움을 줌
- ▶ 요좌: 몽고인, 김천어머니를 노비로 부리고 있음, 사리사욕이 강함.

[이해와 감상]

해장 즉 김천의 이야기는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기구한 운명의 김천(해장)가족이야기로 효도를 주제로 다룬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뒷면에는 고려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해서 백성들은 도외시하고 저희들은 평온한 삶을 사는 동안 무고하게 몽고에 끌려가 종살이하는 부모형제를 구해오기 위해 속량전을 마련해야 하는등 민초의 삶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엿볼수 있는 작품이다 김천은 대몽항쟁기의 대표적인 효자로서 명성이 높았으며『고려사(高麗史)』효우(孝友) 열전에 입전되어 있다.

◆ 해설

이 작품은 '김천'의 효행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김천속모'와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어머니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김천의 모습을 통해 '효'라는 유교적 덕목이 형상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요점정리

(1) 갈래 : 고전소설(?)

(2) 주제 : 어머니에 대한 효성

(3) 특징

- * 인물의 행적을 서사적으로 진행함
- * '어떤 이'와 '김천'의 행적을 대비해 효행을 강조함.
- *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도덕의식을 바로잡고자 쓰여짐.
- * 인물의 덕행을 찬양하고 유교적 사회 규범을 긍정함.

출제요소

가전체 소설의 특징, 의인화를 통한 인물의 비판적 시각을 숙지한다. 난해한 어휘, 어구의 풀이를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국선생전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이규보는 이 작품을 통해 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덕과 패가망신의 인간관계를 군신 사이의 관계로 옮겨놓고 그 성패를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주인공 국성을 신하의 입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유생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신하로서 군왕을 보필하여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

신하는 군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면 자칫 방자하여 신하의 도리를 잃게 되어 국가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고, 마침내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국선생은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성실히 행동해서 관직에 등용되었고, 또 총애가 지나쳐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난 뒤에 후회할 줄 알았으며, 국난을 당해서는 백의 중군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은 사회적 교훈을 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곧 안으로 무신의 난과 밖으로 몽고군의 침입에 희생된 고려 의종, 고종 연간에 난국에 처하여 분수를 망각한 인간성의 결함과 비정(非情)을 풍자한 계세징인의 목적으로 씌어진 작품이다.

■ 핵심정리

- * 연대 : 고려 중엽
- * 작가 : 이규보
- * 형식 : 가전체, 의인체 전기
- * 성격 : 교훈적, 풍자적
- * 특징 : 의인화 기법
- * 구성 : 전기적(傳記的) 구성
- * 주제 : 위국 충절의 교훈(계세징인), 위국 충절과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권계
- * 출전 : 동문선

■ 줄거리

주인공인 국성(魏聖-맑은 술)은 주천 고을 사람으로 아버지는 차이고, 어머니는 곡씨의 딸로서 어려서 서막의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을 붙여주었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이미 깊은 국량이 있어 손님이 그의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눈여겨 보고 이 아이의 심기가 만경의 물과 같아서 맑게 해도 더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라서는 유령, 도잠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으며, 임금도 국성의 향기로운 이름을 듣고 총애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과 날로 친근하여 거슬림이 없었고, 잔치에도 함부로 노닐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삼형제 흑(酷-팁팁한 술맛의 형용), 포(계명주-차좁쌀로 빚은 술), 역(쓰고 진한 술)이 아버지의 총애를 믿고 방자히 굴다 모영(붓을 의인화한 것)의 탄핵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자살했고, 국성은 탈직되어 서인으로 떨어졌으나 뒤에 다시 기용되어 난리를 평정함에 공을 세웠다. 그뒤 스스로 분수를 알아 물러나 임금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 죽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국씨는 대대로 농가 출신인데, 국성이 순후한 덕과 재주로 임금의 심복이 되어 나라 정사를 짐작하고, 임금의 마음을 윤택하게 함에 있어 거의 태평한 경지의 공을 이루었으니 장하도다!'고 하였다.

■ 본문 감상

국성(魏聖-맑은 술, 술을 의인화한 호칭)의 자(字)는 중지(中之:곤드레)니, 관향(시조가 난 땅)은 주천(酒泉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주나라에 있던 땅 이름)고을 사람이다.(이는 고대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앞서, 인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요약적 제시이다. 이러한 전기적(傳記的) 형식이 고대 소설에서는 상투적으로 사용되었다.) 어려서 서막(徐邈 : 중국 진나라 사람, 술을 좋아하여 국법에서 금하는 밀주를 만들어 마셨다고 함)에게 사랑을 받아, 막(邈)이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성을 서막이 지어주었다고 한 것은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서막 설화 중 淸酒爲聖人 濁酒爲賢人'에서 연유하였으며 자 중지는 '국순전'의 '以其聖人之德 時復中之'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의 먼 조상은 본시 온(溫)이라는 고장의 사람으로 항상 힘써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自給)하면서 살고 있었는데(누룩은 따뜻한 온도에서 잘 뜨기 때문에, 온(따뜻할 온)이라는 고장에서 살았다는 말),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에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손의 일파가 정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증조(曾祖)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부 모(牟 : 보리의 의인화)는 살림을 주천(酒泉)으로 옮겨, 이때부터 주천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차(醜 술의 의인화)에 이르러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평원독우(平原督郵 : 郵(우)를 '憂로 바꾸면 '근심없이 하는 벼슬'이란 뜻이며, '청주 종사의'靑州를 '淸酒'로 바꾸면,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서 한다는 뜻이 된다. 평원도 격현에 있으므로, '평원독우란 격상(명치 위치)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못한 술을 의미하며, 청주는 제군에 있으므로 '청주종사는 제하(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잘 넘어가는 술을 말한다.)의 직을 역임하였고, 사농경(司農卿 : 한나라 때 구경의 하나로 미곡과 전적을 관장하던 관직) 곡(穀)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聖)을 낳았다.

⇒국성의 가계와 출생

성(聖)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여, 아버지의 손님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그를 사랑하였다(괴임을 받았다). 손님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의 도량(마음과 그릇)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만경(萬頃)의 물결과 같아서, 가라 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뒤흔들어도 탁해지지(흐리지) 않으니 우리는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성(聖)과 함께 기뻐함이 좋네(즐기는 것이 낫겠소)."

성이 자라서, 중산에 사는 유영(위진 시대의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 '주덕송(술의 덕을 찬양)을 지음, 심양에 사는 도잠(도연명의 본명)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물루(몸을 얹매는, 세상의 온갖 괴로움)가 생긴다(술을 좋아하여 매일 마신다)." 라고 하며, 만날 때마다 해가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

해하였고, 기쁨을 잊고 문득 마음에 취(醉)하고야 돌아왔다.

⇒ 국성의 성품과 교유

국가에서 조구연(糟丘椽)을 시켰으나, 미처 나아가지 못하였고, 또 나라에서 청주 증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위에서 명하여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목송(目送 : 눈짓)하여 말하기를,
"저 군이 주천(酒泉)의 국생(麴生)인가. 짐(朕)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기를, "지금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낸다 하더니."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聖)이 이른지라, 임금이 또한 이로써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곧 주객 낭중(主客郎中)벼슬을 시키고, 이윽고 국자재주(國子祭酒)로 올려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되었다.

무릇 조회(朝會)의 잔치와 종조(宗朝)의 제사, 천식(薦食), 진작(進酌)의 예(禮)에 임금이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기국)이 듅직하다 하여 승진시켜 승정원 재상으로 있게 하고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의 직에 두고), 우례(優禮 : 융숭한 대접)로 하여 매양 들어와 출입할 적에도 교자(轎子)를 탄 채로 전(殿 : 대궐)에 오르라 명하며(술이 상에 차려져 황제의 연희에 올려짐을 은유적으로 표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麴先生)이라 일컬었다.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성(聖)이 들어와 보면 임금은 비로소 크게 웃으니 무릇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 국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과 특별 대우

(중략- 생략된 부분 줄거리)

국성은 미천한 존재로서 출세하나, 국정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 일로 죄를 입어 그의 세 아들은 자살하고 성(聖)도 연좌되어 서인이 되기까지 한다. 성(聖)은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국란이 일어나자 출정하여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공을 세운다. 그리하여 벼슬을 받았으나, 상소하고 물러나와 제 본분을 지킨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늦게까지 지키는 절개)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見機而作 - 견기이작 : 사태나 현상을 미리 짐작하여 파악한 뒤에 행동과 실천을 수행해 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사기열전의 형식을 본뜬)

▣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차이점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임춘의 <국순전>과 마찬가지로 술(누룩)을 의인화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주제는 다르다.

<국순전>은 도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국순이 방탕한 군주에게 등용되었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는 은퇴해서 곧 죽었다는 내용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까지 비판하면서 술로 인한 폐해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에 <국선생전>의 국성은 도량이 크고 성품이 어질며 충성

이 지극한 긍정적 인물로 서술되었다. 국성이 '국선생'이라 불린 점이라든가, 만년까지 제 본분을 지키고 화평한 삶을 누린 것이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작품은 술의 내력, 성질, 효능 등을 사람의 개성, 기질, 욕구 등으로 의인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사건 구조와 인물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 가운데서 술의 효능과 가치를 훨씬 긍정적으로 표현한 쪽은 물론 이규보의 <국선생전>이다.

	국순전	국선생전
차이점	요사하고 아부하는 정객들을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천한 몸으로 성실히 행동했기 때문에 등용되었고 총애가 지나쳐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난 후 반성하고 근신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을 그림
인물	문약과 방탕한 무리 ⇒ 부정적	위국충절의 대표적 인물 ⇒ 긍정적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을 의인화함 *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인물과 지명, 서술 방식 등이 유사함 * <국선생전>은 이보다 앞서 나온 <국순전>의 영향을 받았음 	

출제요소

명혼 소설의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한문)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반복사제포기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양계(陽界)와 음계(陰界)의 인물의 만남, 이별, 양계의 인물이 속세를 버림'이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주인공 양생은 비록 현실이 아닌 음계의 인물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한갓 장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음계의 여인이 사흘 동안의 재가 끝난 후 공중에 나타나, 자신이 양생의 은덕으로 태국의 남자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부탁하지만, 양생이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작품은 설화적 소재에 자신의 창의성을 가하고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으로써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 핵심 정리

- * 작가 : 김시습
- * 연대 : 세조 때
- * 갈래 : 한문소설, 단편소설, 전기소설, 염정(艷情) 소설
- * 배경

구성	구성을 통한 작가의 사상
죽은 사람인 하씨 여인은 명문 거족의 규수이며, 산 사람인 양생은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의 서생임	남녀간의 애정이 생사를 초월할 수도 있다는 작가의 애정 지상주의
하씨 여인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인 인간과 다름없이 양생과 애정을 주고받음	불행한 주인공들의 등장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전란 * 양생-자연적 불행(조실부모) * 여인-사회적 불행(전란) ⇒ 작가의 사회관
저승과 이승의 남녀 주인공의 애정 생활도 명수가 다해 중단. * 여인의 왕생-남자로 다시 태어남 * 양생의 입산- 하씨 여인과 이별한 후에 속세를 떠남	남녀 주인공의 애정 생활에 대한 명수(命數)의 인정은 운명에는 순종 ⇒ 작가의 운명론적 인생관 (인간 운명에 대한 비극적 인식)

시간 - 고려 말(1380년) 최무선 장군의 화공(火攻)에 패배한 왜구들이 호남에 흩어져 노략질을 일삼을

공간 - 전라도 남원 만복사

- * 구성 : 이승전결의 4단구성
-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부분적으로) 운문체
- * 인물
 - 가. 양생 -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인물. 생사를 초월한 사랑도 마다하지 않음.
- 1) 죽은 여인 - 사랑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여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열적 여인.
- * 구성 : 발단(부처님과의 저포놀이)-전개(여인과의인연)-위기(여인의

성체)-절정(여인과의 사랑 및 여인의 사라짐)-결말(양생의 은)

- * 제재 : 죽은 남녀 간의 사랑
-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사랑**
- * 의의 : 1. 최초의 한문소설
2. 현실주의적 지향의 소설이다.
3. 몽유록계 소설의 효시, 전기 소설의 백미

★ 양생과 여인(하씨)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 양생과 여인의 만복사 불전에서 만남
- 술과 시를 주고받음
- 여인의 거처에서 3일간 지냄
- 다음날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짐
- ※ 은그릇의 기능 → 여인이 이승에서 쓰던 것으로 이것을 양생에게 준 것은
 - ① 양생과 여인의 관계를 부모에게 밝히는 매개물
 - ② 양생과의 관계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여인의 의도가 개입
 - ③ 양생과 여인의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소도구**
- 절에서 다시 만나 제삿밥을 함께 먹음
-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고했함
- 양생이 전답을 모두 팔아 재를 지내 줌
- 여인이 공중에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함
- 양생이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다 죽음
- ⇒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 그림**
- ⇒ **여인과 이별 후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에 들어가 혼자 살다가 죽은 절대적인 사랑**
- ⇒ **이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여인을 통해 운명의 힘에 대한 경외감**

★ 작품 구성과 작가의 사상

★ 삼입시의 역할(압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정 장르의 감흥)

- ① 등장인물의 심리 ② 등장인물의 처지 ③ 사건 전개의 매개 역할(부처의 반응)
- ④ 작품의 분위기 창출

★ 여인은 어떻게 죽었는가

⇒ "난리를 겪어도 정절을 지켰으나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다." 난리라는 세계의 횡포와 맞서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것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정절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다. [의중명경 (義重命輕)]

★ 여인은 왜 귀신이 되었는가

⇒ 여인은 도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것이 한이 되어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시습은 [귀신설]에서 사람이 "비명에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기가 남아 있어 오래 되어서야 사라진다"고 하였다.

★ **여인은 왜 귀신이 되어 사랑을 나누었는가.**

⇒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 인연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별해야 한다. 양생도 여자를 만나 '삼세의 인연을 맺어' 사랑을 성취하지만 죽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이별해야만 하는 것이다.

★ **양생은 여자가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 죽은 여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인과 맺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다. 만약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굳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 않아도 된다.

다른 여인을 만나 살 수 있을 것이다. 양생이 여인이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즉 현실에서 정절이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패배할 줄 알면서도 맞서는 것이다.

▣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청했다. 그가 지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것이요, 부처님이 지면 그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증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기였다. 서생은 두 번 저포를 던졌다. 그 결과 서생이 이겼다. 서생은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문득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도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 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서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니 두 사람은 정이 통해져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의 난리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이었다. 이튿날 여인은 서생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기를 권했다. 서생은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사흘 뒤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인이 서생에게 신표로서 은주발 한 개를 선사하였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무덤에 매장한 부장품이었다. 다음 날-이 날은 여인의 대상(大喪)인 동시에 췌날이었다. - 그들은 보련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끝난 뒤 여인은 인연이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평생을 마쳤다.

없는 뒤에야 남에게 구하는 까닭이었다."

■ 줄거리

영남 합천군에 학문적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유광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영남 향시에 급제하여 서울로 시험을 치러 올라가다가 은밀하게 어느 부잣집으로 인도되어 부잣집 주인의 아들을 위해 회시의 대리 답안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 인해 주인의 아들이 진사가 되자 광역은 후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광역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타인의 답안을 대리 작성해 돈 2만 냥을 얻거나 환자를 청산하는 등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던 중 경상 감사와 경시관이 유광역의 글을 찾아내는 것으로써 글에 대한 안목이 있음을 입증하는 내기를 했는데, 경시관이 과장에서 뽑은 시험 답안들에는 유광역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경시관이 몰래 알아본 결과, 시험 답안들은 모두 유광역이 돈을 받은 액수에 맞춰 차등을 두고 지어 준 것들이었다. 경시관은 감사와 내기를 한 터였으므로 죄를 범한 사실을 증거로 얻기 위해 합천군에 공문서를 내려 유광역을 잡아 오게 했더니, 유광역은 지레 겁을 먹고 잡혀 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밤에 친척들을 모아 함께 술을 마신 뒤 몰래 강물에 빠져 죽었다.

■ 핵심 정리

■ 갈래 : 송사소설, 풍자소설, 사회소설

■ 주제

- 과거 시험의 부정과 타락한 사회상 비판
- 선비의 올바른 태도(조선 후기 과거의 실상과 문제)

■ 본문 감상

은 세상을 법석대며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이익을 숭상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익으로써만 살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익으로써 죽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익'이라는 말을 입에 걸지 않으나 소인들은 이익으로 해서 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서울은 온갖 장인(匠人)과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곳인 만큼 대체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전방(塵房, 가게)이 별처럼 벌어져 있고, 바둑처럼 깔렸다. 어떤 이는 남에게 손으로 품을 팔아 먹는 자도 있으며, 혹은 어깨와 등을 파는 자도 있거니와, 뒷간을 치는 자, 칼을 갈아 소를 죽이는 자, 그의 얼굴은 화려하게 꾸며서 매음(賣淫)하는 자도 없지 않으니 천하에 사고 팔이 이에 극도에 이르렀구로. 외사씨(外史氏)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아득한 옛날 나양(裸壤)에선 실과 비단을 파는 저자가 없고, 산짐승을 잡아서 날고기로 먹을 때엔 질솔을 파는 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비록 만드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파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풀무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쇠망치나 칼을 갖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으며, 농사에 힘쓰는 집에서는 쌀장수가 집 앞으로 지나갈 때도 '쌀 사시오'를 외치지 않는 법이니, 이는 제 집에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EBS 수능 특강 수록분

유광역(柳光億)은 영남(嶺南) 합천(陝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를 아주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과시(科詩, 과거 답안용의 독특한 시체)를 잘 하기로 남쪽에서 유명하였다. 그는 집안이 몹시 가난하고 지체도 낮았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향시(鄉試)의 과시(科詩)를 팔아 생계를 잇는 자가 많았는데, 광역 또한 재력을 갖춘 양반 자제의 글을 대신 지어주고 거액의 돈을 버는가 하면, 때로는 말과 종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기까지 하면서 정작 본인의 급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 인물소개(직접적 제시)와 당대의 사회상(과거시험의 부정)

광역이 일찍이 영남의 향시(鄉試)에 합격하여 장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광역을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후 광역은 붉은 대문이 몇 겹이요, 으리으리한 건물이 수십 채나 늘어선 집에 도착했다. 얼굴이 해말썹하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필경사(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고 광역이 글을 쓰면 그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안채에 광역의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진수성찬을 바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왔다. 광역을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듯 하였다. 드디어 과거를 치르고 본즉, 그 주인의 아들이 과연 광역이 대신 지은 글로써 진사에 올랐다. 그제야 행장을 차려 광역을 시골로 내려 보냈다. 광역은 영광스레 말 한 필, 종 한 사람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돈 이만 냥을 갖고 광역을 찾아온 자도 있었거니와, 그가 일찍이 빌려 먹은 고을의 환곡(還穀)을 감사(監司)가 벌써 다 청산해 버리기도 했다.

■ 광역이 어떤 주인의 아들을 위해 대신 글을 지어 준 일

광역의 글이 비록 수준은 높지 못했으나, 산뜻하고 날카로우며 재치와 임기응변에 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체가 낮아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광역의 이름은 나라에서 유명해졌다.

어느 날 서울 시험관이 경상 감사를 찾아가서

"영남에선 글재주로서 누가 으뜸입니까?" 라고 경상 감사에게 물었다.

"유광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경상 감사가 말했다.

"내 이번 과거 시험에서 반드시 그를 장원으로 뽑겠소." 라고 서울 시험관이 말했다.

"당신의 답안지 감식하는 눈이 그렇게 될는지요." 라고 경상 감사가 말했다.

서울 시험관은 자신하듯, "되구말구." 라고 말했다.

둘이 서로 논란을 하던 끝에 광역의 글을 알고 모름으로써 내기를 했다.

서울 시험관이 과장에 올라 '영남 시월 중구 놀이를 열었으니

남북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감탄한다.[嶺南十月 設重九會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嘆南北之候不同'는 시제(詩題)를 내걸었다.

곧이어 시권(詩券) 한 장이 날아들었다. 그 시 중 두 구는 다음과 같았다.

중양절 놀이가 시월에 펼쳐지니[重陽亦在重陰月]

북쪽에서 온 손님 남쪽의 데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北客強醉南烹酒]

라고 적혀 있었다.

경시관(서울 시험관)이 그 시를 읽고 '이것이 필시 광역의 시로군.' 하며 붉은 빛깔의 먹으로 비점(批點, 과거 등에서, 시관이 응시자가 지은 시나 문장을 평가할 때, 특히 잘 지은 대목에 찍던 둥근 점)을 마구 내리치고, 등급을 이하(二下, 열두 등급 중의 여섯째 등급)로 매기어 장원을 뽑았다.

■ 경시관과 경상감사가 시제(詩題)를 통해 광역의 글임을 파악한 일

급기야 봉한 부분을 떼고 보니 광역의 이름은 하나도 없기에 남모래 조사해 보니, 그 답안지들은 모두 광역이 남의 돈을 받고 시를 지어 주되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글의 차이를 낸 것이었다.

경시관은 비록 이 일을 혼자 알았긴 하나 경상 감사가 글을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 광역의 초사(招辭,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삼으려 했다.(유광역이 돈을 받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되, 받은 돈의 다과(多寡)에 따라 답안지의 수준을 조절했던 것이다.

경시관은 글을 보는 자신의 안목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유광역의 이름이 없었기에 그를 잡아 자백을 받아 자신의 감식안이 정확했다는 증거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함천에 통첩을 내려 광역을 잡아올리게 했으나 광역을 죄로 다스릴 생각은 없었다. 그리하여 광역은 군수의 명령에 의해 구속 송치되게

되었다. '나야말로 과적(科賊)이니 서울에 가더라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 생각하고는 그날 밤에 친척들을 모아 놓고 마음껏 술을 실컷 퍼마신 후에 남몰래 강물에 투신 자살해 버린다. 서울 시험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애석하게 여기고 남들도 모두 그의 재주를 안타깝게 여기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 과거 시험 답안에 광역의 이름이 없자 경시관이 은밀히 내막을 밝힘과 광역의 자살

매화외사(梅花外史, 이옥의 별호)는 말한다.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가는 털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던가? 법전에는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 유광역의 행적 논평을 통해 작가의 주제의식 제시: 과거 시험의 부정과 타락한 사회상 비판(유광역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법에 뇌물을 준 자나 받은 자나 같은 죄를 받는다.”고 하여,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유광역으로 하여금 글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만든 사회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조선 후기에 들어 과거 제도의 모순이 극심해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과거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대리 시험의 심각성을 유광역이라는 주인공과 관련된 간략한 전기(傳記) 형식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작가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남의 답안을 대리로 작성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처지를 그리면서 이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비록 서술자는, 겉으로는 광역이 과시까지 파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시험에서 문제 반정에 걸려 평생 과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던 작가 자신의 처지를 볼 때, 더욱더 과거 시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조선 후기의 문인 이옥(李錕 : 1760~1810경)이 지은 유광역의 약전(略傳).당시에는 과거시험의 답안인 과시(科詩)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경상남도 함천에 사는 유광역이 특히 유명했다. 그의 글은 날카롭고 재치가 있기는 했으나 수준이 높지 못했으므로 그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이때 경상감사와 경시관(京試官 : 지방의 시험장에 파견된 고시관)이 유광역의 글을 찾아내는 것으로써 글에 대한 안목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내기를 했다. 시관은 이름이 가려진 시험지 가운데 그의 글인 듯한 것을 장원으로 하고, 2편을 더 뽑아 2위와 3위로 정했다. 그러나 가려진 부분을 뜯고 확인해보니 유광역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몰래 알아봤더니 뽑힌 글들은 모두 유광역이 돈을 받은 액수에 맞춰 차등을 두고 지어준 것들이었다.

감사와 내기를 한 터였으므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잡아오게 했더니, 유광역은 지레 겁을 먹고 친척들을 모아 함께 술을 마신 뒤 몰래 강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여기서 이옥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시험지의 답안이나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처지를 그리면서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체제는 앞으로 소개될 내용을 서두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유광역의 행적을 서술하고 자신의 별호인 매화외사(梅花外史)의 말로 논평을 달았다.

“법대로 따진다면 뇌물을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죄가 같다”고 하여 유광역을 마음을 판 자라고 꾸짖으면서 과시를 파는 행위를 하도록 만든 사회도 비판했다.

<유광역전>의 첫번째 특징은 <<사기 史記>> 열전(列傳)의 변체형식(變體形式)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유광역의 인정기술(人定記述 ; 주인공의 내력을 전의 서두에 기록하는 것)로부터 작품이 시작되지 않는다.

“천하가 법석대며 이(利) 때문에 오고 이 때문에 가니 세상에서 이를 숭상한 자가 오래이다.그러나 이 때문에 사는 자는 반드시 이 때문에 죽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를 말하지 않고, 소인은 이에 무로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죽음을 건다.”라는 이(利)를 경계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뒤에 공급이 있다는 “외사씨왈” 이하의 논평 다음에 유광역의 행적이 기술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유광역의 행적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이다.

유광역의 행적에 대한 기술이 끝난 다음에 그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는 “군자왈” 아래에 당대의 논평을 소개하고, 이어 “매화외사왈” 다음에 저자 자신의 평결(評結)을 싣고 있다.

저자는 여기에서 “유광역과 같은 자는 또한 그 마음을 팔아먹은 자가 아니겠는가?”라 하여 유광역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법에는 뇌물을 준 자나 받은 자나 같은 죄를 받는다.”고 하여, 유광역으로 하여금 글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만든 사회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 송사로 읽는 옛 애기<12> 이옥의 '유광역전'

문무자 이옥(文無子 李錕.1760~1812)은 20여편의 한문 단편을 남긴 바 있는데 그 등장인물과 사건의 설정이 매우 다양하다. 호랑이 잡는 민담, 신통력을 지닌 이인담(異人談), 사기꾼 이야기,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송사 이야기 등의 다채로운 소재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서 그는 당대 현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의미있는 필치로 짚어내고 있다. '유광역전'도 '장복선전'과 함께 송사 이야기의 일종으로 그 구성과 내용이 특이하다.

유광역은 영남의 합천 사람인데 집안이 몹시 가난하고 지체도 낮았으나 과시(科詩·과거 답안용의 독특한 시체)에는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서울에서도 오르내렸다. 그 시절에는 과시를 팔아 생계를 잇는 자가 많았는데, 광역 또한 재력을 갖춘 양반 자제의 글을 대신 지어주고 거액의 돈을 버는가 하면, 때로는 말과 종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기까지 하면서 정작 본인의 급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느해 경시관(京試官·서울에서 파견된 과거 시험관)이 주관하는 과거가 경상도에서 열렸다. 경시관은 자신의 문장 감식능력을 믿고 '이번 걸음에 내가 틀림없이 유광역을 장원으로 뽑을 것이네'라고 장담하면서 경상감사와 서로 내기를 했다.

답안지를 읽어가던 경시관이 우수 작품 세 편을 골라 상·중·하 표시를 하고 가리워진 인적 사항을 펼쳐 확인하니 유광역이란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의외의 결과인지라 경시관은 몰래 급제 답안지의 임자를 추적해 보았는데, 세 편의 답안지 모두가 한결같이 유광역의 솜씨로 지어진 것이었으며, 그것도 받은 돈의 다소에 따라 등급에 정확한 차등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게 된 경시관은 광역의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아 감사에게 증거로 보여줄 심산으로 합천 군수에게 명하여 그를 잡아 올리도록 하였다. 관아로 출두 명령을 받은 광역은 자신이 구속될 것임을 짐작하고 '나야말로 죄인인 만큼 서울에 가더라도 여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결심하고 그날 밤에 친척들을 모아 술을 실컷 퍼마신 후에 강물에 투신자살해버린다. 이 소식을 들은 경시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아까워하였다.

조선시대 문란한 과거가 매관매직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정 부패의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온상이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과거 부정에 얽힌 이야기는 각종 야담은 물론 구비전승으로도 수없이 전해오고 있다. 대리 시험, 당락 조작, 문제의 사전 누설, 권력자의 압력과 청탁...그 수법도 가지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리 시험과 위조 홍패가 가장 간교한 부정 행위인 듯하다.

이같은 과거 부정은 무과(武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훈련원 봉사(奉事·종 8품의 관직)로 있던 자가 시골 한량으로부터 거금을 받아먹고 과녁 명중을 조작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홍패(紅牌·과거 합격증)를 위조하여 한량에게 건네준다. 뒷날 일이 발각되어 모두 엄벌에 처해졌는데, 장기수로 복역중이던 봉사(奉事)가 또다시 범망을 속이고 출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야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오늘날에야 국가고시의 부정행위를 감히 엄두라도 낼 수 있겠는가'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어디 꼭 위와 같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는가? 명문대학의 고시 특별반이나 특강이 번창 운영되는 경우, 특정 교재에서의 빈번한 출제, 일부 고시 출신자들의 근거없는 선민의식, 그들끼리만이 누리고자 하는 각종 특혜와 보호막 등이 없지 않을진대, 조선시대 과거부정의 심각한 현실을 회화적 필치로 그리고 있는 '유광역전'의 의미를 새삼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제요소

영웅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이해한다. (기이한 출생→시련→조력자의 도움→위기 극복)
적강소설의 개념(하늘에서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옴)을 이해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관해룡전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원나라 때 인물인 주인공 관해룡의 영웅적인 무용과 충렬을 그린 소설이다. 인물, 사건 등의 여러 면에서 볼 때 '조웅전' 등과 같은 계통의 다른 소설들과 같이 주인공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여 영웅화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간신과의 대적, 침범한 외적과의 대치가 서사 구종의 양대 축이 되고 있다. 해룡의 아버지는 간신과의 대적에서 패배하지만 해룡은 아버지의 억울한 죄를 풀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해룡의 무용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영웅의 결연담, 연애담은 비중이 축소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교의 입신양명과 충요 사상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의 출생이 불공에 의한 것이고, 진번국을 칠 때 남해 중림사에서 7일 동안 불공을 드려 도를 깨쳤다는 것, 운수산 용왕당을 찾아 용제(龍祭)를 지내고 음조(陰助)를 얻는다는 것, 진번과 접전 때 오백 나한과 삼만 육십 사천왕을 부렸다는 내용은 불교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중간중간에 도술을 익히고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는 도술적인 요소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영웅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특징
 - 영웅의 위업 성취 과정에서 조력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제시
 - 신비로운 전장의 분위기와 영웅적인 활약상이 두드러짐
 - 빠르고 느린 장면을 교차하여 서술의 안급을 분명히 드러냄
- 인물
 - 관해룡: 관충국의 아들로서 남해 보살의 힘을 입어 태어난 인물. 도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뒤에 천자와 아버지를 구하는 인물
 - 관충국: 간신의 모함에 의해 유배지로 밀려난 충신
 - 천자: 간신배에 의해 관충국을 유배지로 보내는 등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하는 인물. 훗날 자신의 처사를 뉘우치고 관충국을 용서하며, 해룡을 부마로 삼는다.
- 제재 : 조력자를 만나 힘을 얻는 해룡, 해룡과 적장과의 싸움
- 주제 : 관해룡의 영웅적인 무용과 충렬

★ 인물간의 갈등 구조

⇒ 갈등구조가 부자의 2대에 걸쳐 드러남(관승상과 간신배 무리의 갈등, 적장과 싸우는 관해룡). 따라서 전반부→ 후반부의 이야기 전개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땀

죽이 아버지→ 아들로 옮겨감

- 선인형 인간
 - 관승상→ 관해룡
 - ↓(충신)
- 황제
 - ↑(역적)
- 악인형 인간
 - 간신배→ 서번(적)

▣ 줄거리

주인공 해룡은 그의 아버지 관승상(郭丞相)이 불전에 시주한 은공으로 남해 중림사(重林寺)의 관음보살이 점지하여 태어났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관승상은 원나라 황제 23년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어진 신하를 가려 쓴 공으로 온 나라에 그 이름을 떨쳤으나, 우승상(右丞相) 등 간신의 모함으로 멀리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해룡이 15세 때 적소(謫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도중 적소검(摘小劍)과 갑주(甲冑)를 얻고 용문산에서 천문과 지리를 배우고 병서를 얻어 병법과 신기묘술을 터득한다. 신황제 즉위 5년 서번(西蕃)이 월지(月支) 가달(加達)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물리치고 적진에 잡힌 황제를 구한다.

해룡이 관승상의 아들임을 비로소 알게 된 황제는 적몰(籍沒 : 죄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들이는 것)했던 가산을 반환하고 아버지 관승상을 위왕에 봉하고 해룡을 충렬후좌승상(忠烈侯左丞相)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간신들의 모함에 속아 개선한 해룡을 기다려 목베게 한다. 해룡은 곧 설산도의 적소에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이미 진번국에 잡혀간 뒤였다.

해룡이 반역을 꾀한 진번국을 다시 치고 아버지를 구출하여 황성으로 개선하자, 왕은 전일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룡을 부마로 삼아 부모를 효봉(孝奉)하게 하였다. 관승상이 죽은 뒤 해룡은 위왕에 봉해지고 국태민안한 가운데 백년화평을 누린다.

<본문 해설>

“어떤 **노승<늙은 중>**이 밖에 와 **상공<대감>**께 뵈움을 간청하
나이다.”

하거늘, 승상<국무총리>이 즉시 당(堂)<건물>에 나와 노승을 맞으
니, 노승이 들어와 합장 배례(合掌拜禮) * **왈<말하길>**,

“**소승<중이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 **남해 죽림사
<남해에 있는 절 이름>**에 있삽더니, **사찰<절>**이 **퇴락하와<낡
아서>** 불상이 풍우(風雨)를 면치 못하와<**부처님 불상이 다 비바
람을 맞는다.>** 중수(重修) * 코자 하오나 **재력<돈>**이 없사와 **상
공<대감>** 댁에 왔사오니 **시주하옵시기를<후원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청하거늘 승상이 생각하되, ‘내 재물이 많으나 전할 곳이 없으
니<**쓸 곳이 없으니>** 차라리 불전에 공양하여 훗길이나 닦으리
라.’<**불교에 후원하여 복을 받겠다.>** 하고 황금 일천 냥을 주며
왈, / “**대사<중을 높여 부르는 말>**는 부처께 **발원하여<소원을
빌어>** 혹 **자식이나 접지하여<자식이 생기게>** 주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니, 노승이 애련하여 왈, /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
오니 **세존께<부처께>**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섬돌 아래 내려 두어 걸음에 간 바를 모를레라. <**디딤돌을 두
어 걸음 내려가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승상이 그제야 부처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감
사를 포함>** 즉시 **내당에<안채>** 들어가 부인더러 노승의 하던 말
을 전하고 혹 **감응함이<부처의 응답>** 있을까 바라더니, 비몽사몽
간에 한 동자가 들어와 절하며 왈,

“소자는 남해 용자(龍子)이옵더니, <**저는 남해 용왕의 아들임
니다.-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해룡이다.>** 부왕(父王)을 모시고
천궁(天宮)에<옥황 상제의 궁전> 갔삽다가 서방(西方) 금성차지
(金星次知) 금성태백(金星太伯) <**초월적 세계의 신들 중 하나>**으
로 더불어 승부를 다투다가 **상제(上帝)<옥황 상제>** 노하사, 태백
은 귀양을 보내고 소자는 **중원(中原)<인간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모르더니, 마침 남해 죽림사 관음보살이 이곳을 지시하시기로
왔사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 하고 앞에 안기거늘 놀라 깨달으니 ㉠
남가일몽(南柯一夢)<꿈>이라.

또 보니 부인이 잠이 들어 몽롱하거늘, 부인을 깨워 꿈을 나타난 일
을 전하니 부인이 또한 **가로되,<말하길>**

“첩도 아까 꿈을 얻사오니 그러하더이다.”

승상 왈, / “노승이 전일에 금을 받고 은혜라 하여 귀한 아들을 접
지하시도다.”

하고 즐겨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임신 징후>** 있어 열 달이
차매, 하루는 집 안에서 오운(五雲)이 일어나며 천등과 벼락이 천지
진동하더니 부인이 순산하니 일개(一介) **옥동(玉童)<귀한 자식>**이
라. 승상이 크게 기뻐하여 향수에 씻겨 누이고 아이의 상(相)을 보니,
용의 얼굴이요, 범의 머리와 꿈의 등과 이리의 허리라. 우는 소리
웅장하여 완전히 꿈속에 보던 동자라. 옥 같은 얼굴과 준수한 풍채는
일대호걸<큰 영웅>이라. 이름을 ‘해룡’이라 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황제가 갑자기 죽고 태자가 즉위하자, 곽 승상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왕윤정 등에 의해 모함을 받아 설산도로 유배된다. 해룡은 부친을 찾
아 설산도로 가는 도중에 응천 도사를 만나 술법을 배운다. 한편 **서
번<오랑캐 족속의 하나>** 등이 연합해서 중원을 침략하여 황제가
포로로 잡힌다. 해룡은 황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술로 적을
물리치고 황제를 구한다. 황제는 해룡이 곽 승상의 아들임을 알고,
곽 승상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해룡이 부친을 찾아 설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친은 **진번<오랑캐 족속의 하나>**에 잡혀간 뒤였다.
해룡은 응천 도사를 만나 진번의 반란 소식을 듣고 부친을 구하기
위해 진번으로 향한다.

이때 해룡이 설산도에서 떠나 진번으로 향하여 풍우같이 달려오더
니, 마침 날이 저물거늘 운남에 들어가 **절도사(節度使)<변방의 군
사령관>**를 보고 진번이 반란을 일으킨 일과 승상 잡아간 일을 물으
니, 절도사가 크게 놀라 이 **연유<이유>**를 아뢰고 **객사<손님 방>**
로 옮겨 쉬더니, **원수<총사령관, 해룡은 황제를 구하고 총사령
관이 되었다.>**가 몸이 곤하여 잠자리에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와 이르되,

“원수는 무슨 잠을 이리 자느냐? **승상<국무총리>**의 목숨이 시간을
다투니 바빠 구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즉시 절도사를 청하여 전후 말을 이르고 진번까지의 거리를 물으니,
대 왈<답하여 말하길>, / “천여 리라.”

하거늘, 마음에 바빠 급히 말을 채쳐 나오니 벌써 동방이 밝고 **일색
(日色)<햇빛>**이 비치는지라. **울적한 회포와 무궁한 분기(憤氣)
를 이기지 못하여<슬픈 마음과 큰 분노-아버지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고생할 생각 때문에>** 풍우같이 달려가니 벌써 오시(午時)
* 가 되었는지라. 진번에 다다라 산 위에 올라 보니 어떤 노인을 붉
은 줄로 목을 묶어 수레에 싣고 나오니, **명패<표지판>**에 썼으며,
‘대국(大國) 반적(叛敵) 곽총국이라.’ 하였거늘, 그제야 부친인 줄 알
고 한편으로 슬프고 분기충천(憤氣衝天)한지라. 급히 **둔갑<변신술>**
을 배풀어 몸을 다섯에 내어 각각 갑옷과 투구와 장검(長劍)을 들리
고, 주문을 외워 천지 풍운을 일으키고 화살과 돌을 날리며 오방신장
(五方神將) * 으로 변신을 습격하여 죽이고, 삼백육십 사천왕을 불러
‘좌우에 옹위하라.’ 하고 말을 모아 적소검을 들고 큰 소리로 왈,
“무도한 역적은 나의 부친을 해치지 말라.”

하고 좌충우돌하니, 변진 장졸이 사산분주(四散奔走) * 하는지라.

원수가 적소검을 날려 좌우 무사를 베고 승상을 구하여 묶인 줄을
끄르고 송림 사이의 절벽 근처에 모셔 앉게 하고, 원수가 땅에 엎드
려 통곡하며 왈,

“부친은 정신을 진정하소서. 불초자(不肖子) 해룡이 왔나이다.”

하며 통곡하니, 승상이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해룡이란 말을 듣고 손
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네 해룡이라 하니 반갑기 **측량없고<끝이 없고>** 슬프기 무궁
하다. 네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며 너의 모친도 평안하시나? 전후
사연을 말하라.”

원수가 여쭙오되, 부친이 유배당하신 후 소자가 모친을 피시고 있삽
더니, 부친을 뵈옵고자 하여 모친을 하직하옵고 적소로 향하옵다가

⑥두문동에 두 자사와 사랑을 만나던 말이며, 또 선생을 만나 술법 배운 말이며, 서번을 파하고 천자의 공문을 가지고 설산도로 가다가 부친 소식을 듣고 진번으로 오다가 절도령에서 꿈꾸던 말이며, 모친이 궁중의 종이 되었던 말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듣기를 다 마치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왈,

“내 늦게야 너를 낳아 이다지 장성하여 **국가 사직을 안보하고, <나라를 지키고>** 또 노부의 죄를 풀어 주고 오늘날 재앙을 면하게 하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시고 부처가 지시한 바가 아니리오?”

하며, 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등을 어루만져 왈,

“지금 진번이 강성하여 **도번<오랑캐 족속의 하나>**과 합세하여 **철관 도사<오랑캐 장수 이름>**로 **모사(謀士)<참모>**를 삼고 **목특<오랑캐 장수 이름>**으로 선봉<선봉 부대 대장>을 삼아 중원을 치

고자 하여 나를 달래어 너를 유인하고자 하며, 내 듣지 아니하여 오늘 이 지경을 당하였거니와, 적장 목특은 만고 명장이라, 부디 적을 알아보지 말라.”

하며 못내 반기며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거늘, 원수가 왈,

“부친은 안심하소서. 소자(小子)가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적장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칼을 들고 나서며 크게 외쳐 왈,

“진번왕은 내 칼을 받으라. 금일 너희를 **함몰하고<죽이고>** 부친의 분함을 씻으리라.”

* 합장 배례 :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절함.

* 중수 :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험 것을 손질하며 고침.

* 오시 :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오방신장 : 다섯 방위를 지키는 다섯 신.

* 사산분주 : 사방으로 흩어져 재빨리 달아남.

들어가기

고전 어휘와 표현에 유의하며 독해를 해야한다. 참조, 황망, 괴이 등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경우, 생략 부분의 줄거리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조웅전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영웅 소설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널리 읽혀졌던 작품이다. 전반부는 주인공의 고행담과 결연담(結緣談)이며, 후반부는 영웅적 무용담(武勇談)으로,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나 전체적인 통일성은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도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동을 도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두 명의 부인을 거느리도록 꾸며 놓았는데 이는 동양적인 중세 남성들의 이상적인 애정관을 표현하려고 한 데에서 모든 영웅 소설이 동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충렬전'과 유사한 구성이나 사건이 좀더 현실적이며, 한시(漢詩)의 삽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핵심 정리

갈래 : 고대 소설. 국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軍談小說)

주제 : 진충보국(盡忠輔國)과 자유연애(自由戀愛)

■ 줄거리

이 작품은 필사본과 목판본이 있으며, 목판본도 경판, 완판, 안성판으로 간행되었고, 활자본은 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경판계는 단편으로 약 20~30장, 완판계는 각 30장 안팎의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웅의 아버지 이름이 완판계는 '도정인(道正人)'으로 되어 있는데 경판계는 '도정(道正)'으로 된 점과, 내용의 자세하고 간략함이 다를 뿐, 근본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人)이 이두병의 참조를 입고 음독 자살하니, 외아들 조웅은 이두병의 모해를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도망한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 모자는 다행히 월경 도사를 만나 강선암으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그 뒤 도사를 찾아가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은 조웅은, 강선암으로 돌아가던 도중 장 진사택에서 유숙하다가 우연히 장 소저와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이 때 서번(西蕃)이 침입할 때 조웅이 나아가 이를 물리친다. 한편, 천자를 자칭한 이두병이 조웅을 잡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으나 도리어 조웅에게 연패한 끝에 사로잡히고 만다. 천자는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조웅을 제후로 봉한다. 여기 실은 것은 이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다.

■ 작품의 감상

영웅 소설이며, 군담 소설(軍談小說)로서 진충보국(盡忠報國)과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국문으로 된 소설이다.

작품 전체의 구성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이고,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둘째는 조웅과 번왕의 대립이며,

셋째는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이다.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은 그 아버지 조정의 죽음에 따른 숙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번왕과의 대립은 그 부친이 위왕과 우호 관계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는 대체로 18~19세기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작자층에 대해서도 몰락한 양반층, 무인층 등으로 추정할 뿐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작품은 다른 군담 소설에 비하여 색다른 점이 있다. 대체로 명산 대천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들을 얻게 되는 기자(祈子) 치성 이야기가 없고, 주인공이 천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나 특별한 인연으로 지상에 하강한다는 식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또, 장 소저와 혼전에 동침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이러한 특색은 이 작품이 대중들의 기호에 맞도록 통속화함으로써 독자층의 호응을 얻고자 한 데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그 어떤 작품보다 많이(16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전하는 이본만도 목판본과 필사본을 합하여 약 80여 종에 이른다.

■ 작품의 특징

▶ 도술을 사용하고 연애 결혼을 하는 영웅

[조웅전]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영웅소설, 군담소설이다. 작품 속에 한시가 많이 등장하고, 자유연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문을 잘 알고 있는 중인출신의 작가가 쓴 것으로 짐작된다. 배경은 중국의 송나라 때인데,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가 중심 주제이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조웅의 초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자유연애에 의하여 혼인하는 것이 나타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주인공 조웅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어 뜻을 이루는 수십년 간을 중국 각지를 무대로 쓰여진 소설이다.

그 이야기의 전개가 치밀하고 인생의 굴곡을 담고 있으며 남녀간의 사랑이나 기묘한 인연과 술법 등장, 위기 때마다 꿈에 의하여 예지를 얻는 점등이 마치 중국의 무협소설을 보는 듯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흔히 영웅이 그렇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조웅도 역시 초인적인 능력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춘 것은 물론 절세의 미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 온 백성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된다.

▶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소설

이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은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성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온갖 도술이나, 위기 때마다 이를 예언하는 꿈의 등장이 도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충효나 입신양명, 여인의 절개 등은 모두 유교적인 덕목인 것이다. 이런 영웅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황폐화된 우리 민족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서 신분제도가 약화되거나 남녀간의 자유 연애 풍조가 생겨나고 이는 소설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났다. 조웅이 장소저와 만나 사랑하는 장면은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조선후기에 쓰여진 이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과 함께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소설 중에 하나이었다고 한다.

<본문 해설>

[앞부분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두병에게 **참소 <모함>**를 당하여 죽자, 외아들 조웅은 이두병의 모략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간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은 월경 대사와 철관 도사로부터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는다. 이두병은 송나라 태자를 유배 보낸 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서번은 송나라 침입을 위한 **전초전 <큰 전쟁에 대한 준비로 하는 전쟁>**으로 위를 침범하고, 조웅은 위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다.

위왕이 장대에서 보다가 뜻밖에도 난데없는 **비장<관직 이름>**이 나가 번장을 베고 나는듯이 본진으로 들어오거늘, 실로 꿈같은지라. 극히 **괴이<이상>**하여 바빠 나와 맞아 **장대<지휘대>** 울러 앉히고 **황망히 <크게> 치하<공을 칭찬함>**를 무수히 하였다. 웅이 대하에 내려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소장이 군영 밖의 사람으로 진중에 와 고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 하였사오니 죄를 받고자 합니다.” 위왕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지각이 없어서<생각이 없어서>** 장군을 멀리 나아가 맞아 오지 못하여 과인의 잔명이 오늘날 다하게 되었더니, 천만 뜻밖에도 장군이 와 목숨을 보전하오니, 바라옵건대 장군의 거주와 **존호<이름>**를 알고 싶소이다.”

웅이 다시 땅에 엎드려 처음부터의 근본을 자상히 아뢰니, 왕이 **대경 실색하여<크게 놀라>** 웅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장군의 부친은 곧 과인의**왕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죽마고우<오랜 친구>**라. 이제 그대를 보니 벗을 대면한 듯, 일변<한편으로>는 반갑고 일변은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 하고 다시 묻기를, “그대의 소식을 모른 지 오랜지라. 어디서 이리 오며, **대국<송나라, 위는 송나라의 제후국이다. 따라서 위왕은 송나라의 제후, 영주이다.>** 소식을 대강 **설화하라.<말하라>**”

웅이 눈물을 흘리며 이두병이 송을 멸하고 천자가 되어 송 태자를 태산부 계량도에 **안치한<놓아둔>** 사연과 모자 망명하여 다니는 곡절을 아뢰었다. 위왕이 듣고 기절하여 엎어지니 좌우 제신이 구하매, 왕이 진정하여 대국을 향하여 **사배<절을 함>** 통곡하니, 그 충성이 본디 거룩한 지라. 웅이 위로하여, “큰일을 당하여 아직도 도적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사오니, **평국<平國> 하은 후에<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오랑캐의 침입을 막은 후에>** 이로부터 하실 일이 많을 것이오니 너무 슬퍼 마십시오.” / 라고 말하니 위왕이 정신을 진정하여 승전할 모책을 의논하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웅은 위왕을 도와 서번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후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태산부에 있는 섬인 계량도로 간다. 미인이 거문고 타기를 그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니, **만조 제신이 <운 신하>** 또한 **비창하여<슬퍼하여>** 일시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나 돌아왔다. **원수<조웅>**가 몸을 솟구쳐 나는 듯이 들어가 태자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사배하고 아뢰기를, “소신은 **전조<전 조정>** 충신 조정인의 아들이운데 태자의 **옥체는 <임금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안녕하옵시나이까?” 하니, 태자가 크게 놀라고 낮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꿈이나 생시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 아니면 어찌 이곳을 왔으리오?” 하며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 하시거늘, 원수 붙잡고 위로하여 말하기를, “잠시 진정하옵소서.” / 하니, 태자가 눈물을 거두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지(死地)에 왔는가? 과인은 **신운이 불길하여<운이 없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목숨이 위태롭기에>** 생전에 다시 만나기가 꿈박이요. 옛일을 생각하니 또한 꿈이라. 여덟 살 때에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니 반갑기가 그지없고 슬픔이 헤아릴 수 없도다.” 원수가 묻기를, / “저 여인은 누구라 합니까?” / 태자가 말하기를, “매화라 하는데, 이 계량도의 관비라. 이 계량도 **별장<관직 이름>**의 이름은 백성취라 하는데 또한 충신이다. 이리로 온 후 별장의 **관대함 <너그러움>**에 힘입어 편히 머물렀으니 실로 바라지 못했던 일이다.” 또한 저 아이를 시중들 여자로 정하여 주기에 데리고 **수회<愁懷>**를 **<울적한 마음>** 위로한 일이며, 또한 고국 충신들이 따라와 있는 일이며, **명일<내일> 진시<오전 7시~9시>**에 사약하는 일과, 이 섬에 있는 충신들을 모두 내일 나거(拿去) * 하는 일 등이 모두 다 태산부 **자사<관직 이름>**가 **장문<狀聞><상소문>**을 올려서 이렇게 된 사연임을 이야기하며 통곡하였다. 원수 또한 슬픔을 헤아릴 수 없으나 위로하여 말하기를, “지금 일이 급하옵고 소신이 싸우기에 유리한 진세에 **둔병<屯兵><군사를 주둔시키고>**하고 태자의 **존망을<생사>**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소신이 이제 급히 나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 태자를 모셔 갈 것이니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하고는 즉시 하직하고 나왔다. 이날 새벽 네 시경에 **계명성이<셋별>** 나니, 모든 충신들이 각각 **처소<숙소>**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시에 나아가 태자전에 하직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태자 등불을 밝히고 얼굴에 **희색이<밝은 빛>** 가득하였다. 모든 충신들이 엎드려 아뢰기를, “태자의 **용안에<임금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말>** 희색이 있사오니 **연유<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 “내가 즐거운 까닭은 매화가 아느니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겨 나와 매화에게 물으니, 매화가 웃으며 붉은 입술을 잠깐 열어 맑은 노래 한 곡을 울리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산중의 어젯밤 비에 **봄소식<조웅>** 들어 보았는가?
오며 아니 음은<오는지 안 오는지는> 설매<雪梅><눈 속의 매화, 충신> 네 알리라.

매화가 알린다는 **양류<楊柳><충성스럽지 않은 신하>** 알까 하노라.
▶꽃에게 비가 내리듯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이다.

이날 밤에 원수가 **진에<군사 진영>** 돌아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 “그대 등은 이리이리하라.”

약속을 정하고 군사를 몰아 급히 계량도로 가니, 날이 벌써 밝아 진시가 되었다. 원수가 마음이 바빠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별궁으로 다다라 들어가니, 벌써 **봉명(奉命)<임금의 명령을 수행>** 사신이 약그릇을 내어 오고 모든 충신들을 다 결박하였거늘, 원수가 **분기충천하여<화가 나서>** 약그릇을 빨리 물리치고 칼을 들어 봉명 사신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모든 충신을 다 끌러 놓아라.’ 하고 태자 앞에 엎드려 사배하니, 태자가 정신을 겨우 차려 원수의 손을 잡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꿈인들 이러하겠는가? 행여 꿈을 깬까 염려하노라.” / “안심하옵소서.” 하고 충신을 모두 **당상<대청 위>**에 올려 영접하니, 태자 매우 바쁜 사이에 혼을 잃어 실성한 사람 같았다.

* 나거 : 잡아감.

출제요소

기존 소설과 다르게 군주를 바꾸는 ‘택군’의 특징을 당시 유교적 분위기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용문전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작자를 알 수 없는 고전소설로 귀족적 영웅소설·군담소설. 소대성전(蘇大成傳)의 결말을 전제로 사건이 발단되고, 소대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창작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명나라때 은사(隱士) 용훈의 만득자로 태어난 용문은, 연화 선생을 따라가 병법을 배운다. 호왕이 부왕(父王)의 복수를 위해 명나라를 침범하고, 천관도사의 권유에 따라 용문을 찾아가 자기편으로 만든다. 용문의 활약으로 호군이 연승을 거두고, 노왕(소대성)마저 용문에게 패배한다. 이때 연화선생이 친서를 보내 용문을 명나라로 전향시키고, 이로부터 전세가 완전 역전된다. 용문의 전향을 안 호왕이 용훈을 잡아 가두고, 천관도사가 호군을 이끌고 명을 공격하나 연화선생과 용문·노왕이 이를 격퇴한다. 호왕은 용문에게 죽임을 당하고, 천관도사는 노왕에게 잡히나 천의(天意)에 따라 석방된다. 용문이 호국 장사왕이 되고, 용훈도 풀려 난다. 용문이 장사를 부인으로 맞아 행복하게 산다. 이 작품은 귀족적 영웅소설의 기본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주인공이 한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고, 전향하여 다른 왕을 섬긴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으며, 그를 통해 절대적 가치로서의 충(忠)이 상대적 가치로 바뀌어 가는 가치관의 전환현상을 보여 준다. 경판·완판·구활자로 된 이본이 전하는데, 경판본이 선행본으로 추정되며, 이본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판본은 용문 중심으로 짜여 완전히 독립된 작품을 이루고 있으나, 완판본은 소대성에게 관심이 더 집중되면서 소대성전의 하권처럼 바뀌어 있고, 구활자본은 완판본을 저본으로 하되 <대성용문전>이라는 이름으로 소대성전과 완전히 합쳐져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창작되어, 두 작품의 관계가 더욱 긴밀화되는 방향으로 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소대성전의 인기로 편승하려는 출판업자들의 영리적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후기 소설의 상품화가 작품의 창작과 개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실증하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원수)

■ 핵심 정리

■ 갈래: 고전소설, 귀족적 영웅소설, ·군담소설

■ 성격: 영웅적 일대기

■ 구성

- 발단.1: 명나라 때의 운둔지사이던 용훈이 늦게 아들 용문을 둠
- 발단.2: 용문이 연화 선생 아래서 병법을 배움
- 전개.1: 호왕이 부왕의 복수를 위해 명나라를 치려 함
- 전개.2: 호왕이 도사(천왕선생)의 권유에 따라 용문을 부하 장수로 맞음
- 위기. 절정.1: 용문의 활약으로 호군이 승리를 거둠
- 위기. 절정.2: 연화 선생이 편지를 보내 용문이 전향하기를 설득함
- 결말.1: 용문의 전향 후 호국이 명을 공격하나 노왕과 용문이 이를 격퇴함
- 결말.2: 용문이 전승의 공을 이루고 장사를 부인으로 맞아 행복하게 살

■ 주제: 용문의 영웅적 활약상과 그 일대기

★ <용문전>의 주제의식

<용문전>은 <소대성전>의 인기로 편승하려는 상업적 의도를 바탕으로 창작되었으면서도, 조선 후기 가치관의 전환 과정을 정확히 포착하여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조선 후기 소수 핵심 지배층의 장기적인 권력 독점과, 세도정치에 의한 국가권력의 사유화 경향은 지배층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를 낳고, 이는 왕권과 지배체제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로 확대됨으로써 전통적인 주자학적 가치관의 변모를 초래하게 되었다. 택군의 규범이 변질의 합리화 구실로 변질되면서 불사이군의 절대적 규범은 택군이란 상대적 규범에 의하여 부정되고, 그 결과 절대적 가치로서의 충은 상대적 가치로 바뀌어 갔다. 이는 곧 주자학적 이념이 지배논리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차츰 상실해 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주자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관은 당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에, 그것이 전환되는 데에는 심각한 사회적 진통이 따랐다. 변모된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가치관의 갈등과 혼돈이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통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한층 심화되어 나타났다. 경판본에서 드러나는 용훈과 용문의 가치관 대립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심각한 내면적 고뇌를 거쳐 형성된 용문의 새 가치관은 용훈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되면서, 부자간의 대립을 초래하여 가정의 화목까지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의 갈등은 부자간이라는 가족적 차원을 넘어, 신·구세대간의 갈등이나 전체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진통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이행함에 따라 한층 심화되어 나타난다. 경판본에서는 용문의 새 가치관과 용훈의 전통적 가치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이 아직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이나, 완판본에서는 용훈마저 용문의 새 가치관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의 지지 기반이 거의 상실되었음을 보여 준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탱하고 있던 구세대까지 새 가치관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가치관의 차이에 거 기인된 혼돈과 갈등이 해소되고, 새 가치관이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불사이군의 절대적 충은 그 생명력이 다했으며, 전통적 군신관계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 준다.

판본에 따른 작품세계의 차이는 그 작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판본의 작자는 가치관의 전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과거사회로의 복귀를 꾀함으로써 시대 역행적인 보수적 의식을 보이는 반면, 완판본의 작자는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새 가치관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진취적 의식을 보여 준다. 이는 완판본의 작자가 전환기의 시대적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경판본과 완판본에서 드러나는 작품세계 및 작자의식의 차이는 두 판본이 성립된 시·공간적 배경 및 독자층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후대본인 완판본은 가치관의 전환이 보다 심화된 시기를 배경으로 했기에, 경판본과는 달리 전통적 가치관을 과감히 거부하고 새 가치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두 판본의 배경이 된 서울과 전주의 지역적 특성과 독자층의 차이는 이를 한층 심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 <소대성전>과 <용문전>의 관계 및 이본 상호간의 관계

두 작품은 연작 관계에 있으며, 이는 등장 인물의 일치나 스토리의 연속성 등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그리고 <용문전>은 <소대성전>보다 상당 기간 뒤에 다른 작자에 의하여 덧붙여졌고, 따라서 <소대성전>의 후편이나 하권이 아니라 속편이라 함이 타당하다. 한편 새로이 창작된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 형태를 취한 것은 당시 인기 작품이던 <소대성전>의 후광을 이용하여 독자를 확보하려는 상

업적 의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계성의 정도는 이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경판 <농문전>은 그 자체의 독립성이 강하고 <소대성전>과의 연계성이 약한 반면, 완판 <용문전>은 자체의 독립성이 약하고 <소대성전>과의 연계성이 강하며, 활자본 <대성용문전>에서는 <용문전>의 독립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소대성전>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 두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되어 있다.

경판 <소대성전>이 맨 처음 창작된 뒤 상당 기간 뒤에 경판 <농문전>이 덧붙여 졌으며, 그 뒤 이들 경판본들을 선행본으로 하여 완판 <소대성전>과 완판 <용문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때 용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경판 <농문전>이 소대성 중심의 완판 <용문전>으로 개작되면서,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창작되었던 <용문전>은 <소대성전>의 하권 형태로 바뀌어졌다. 그 뒤 이들 경판본과 완판본을 바탕으로 활자본 <대성용문전>이 형성되었으니, 그 상권은 경판 <소대성전>을, 그 하권은 완판 <용문전>을 저본으로 한 것이었다.

경판 <농문전>은 <소대성전>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속편의 형태를 취했으나, 속편의 성격상 독립성이 강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완판 <용문전>의 작자는 경판 <농문전>을 해체하여 <소대성전>의 하권으로 개작함으로써, <소대성전>의 후광을 보다 더 증대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작의 과정에서 완판 <용문전>은 속편도 하권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갈등이 미결인 상태로 작품이 종결되는 등 전체적 통일성이 파괴됨으로써, 오히려 독자를 상실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성용문전>에서는 완판 <용문전>의 불필요한 삽화들을 모두 제거하여 작품에 통일성과 완결성을 부여함으로써 <용문전>을 명실상부한 <소대성전>의 하권으로 변모시켰다. 두 작품을 동일한 제명 아래 통합시킴으로써 <대성용문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독자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상업주의가 소설의 창작과 개작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출제요소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낙성비룡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웅소설이다. 비범한 인물이 처지가 몰락한 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결연하고, 장애를 겪지만 결국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모가 일약 영웅, 승상(丞相)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영웅담을 엮은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의 내용에서 한문투가 아닌 '눈을 빛쓰고', '구름같이 여든다'라는 등의 순우리글 어구(語句)가 발견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소설의 무대가 중국이고, 서술 방법이 진부한 점, 그리고 역지로 중국고사에 맞추려고 한 점 등은 역시 다른 고전소설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 고아의 고난과 극복
- 특징 : 각 장면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매우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함
- 작품 갈등 구조: 혼사 장애 모티브
 - 양공(인품을 중시함)
 - ↓ 갈등 매개체: 경주의 혼사문제
 - 부인과 두 아들(가문을 중시함)
 - 양공이 결정함

▣ 줄거리

명나라 정통연간(正統年間) 북경 유화촌에 이주현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부인 오씨가 어느 날 큰 별이 방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경모(아명 경작)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퇴임재상 양승상의 눈에 띄어 의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승상이 죽자 심한 박대를 견디지 못한 그는 청운사로 들어가 학업을 닦아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마침 번왕이 모반하여 쳐들어오자 그는 원수가 되어 이를 평정하고 평원왕에 봉해져서 양승상의 딸과 해로하게 된다.

출제요소

변신 모티프(하늘 나라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서 기이하게 태어났다가 선행을 해서 준수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 대표적으로 박씨전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해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금방울전 작품해설

▣ 줄거리

명나라 초엽에 장원이라는 한 선비가 아들을 낳아 해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뒤에 난리를 만나 피난길에 장원부부가 해룡을 버리자, 도적인 장삼이 해룡을 업고 강남고군으로 달아 났다. 또, 김삼랑의 처 막씨는 효성이 지극하여 꿈을 꾸어 옥황상제로부터 아이를 점지받고, 죽은 남편의 혼과 동침해서 금방울을 낳았다.

금방울은 신출귀몰하는 재주로 어머니를 도와 온갖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이웃의 무손이 흠쳐갔는데 불이 일어나 가재도구를 모두 불태웠다. 또 고을 원님인 장원이 막씨를 가두고 금방울을 처치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큰 혼만 당하고 금방울과 막씨를 풀어주었다. 장원의 부인이 병을 얻었는데 금방울이 부인의 생명을 구해준 인연으로 장원부부는 막씨와 결의형제하고, 그 뒤로는 금방울이 장원부인과 막씨 사이를 오가면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루는 금방울이 장원에게 난리 중에 잃은 해룡(海龍)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가져다준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때 태조고황제가 난을 평정한 뒤 늙어서 금선공주를 얻었다. 하루는 황후와 공주가 시비와 함께 달구경을 하다가 요귀에게 납치당하자, 황제는 공주를 찾아주면 천하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써붙인다. 한편, 해룡은 장삼의 아내 변씨의 학대로 어려운 일만 당하는데,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그러나 해룡은 구박을 못 견디어 변씨 집을 나와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금털이 난 머리 아홉 개 가진 요귀를 만나 위태롭게 된다. 이때 금방울이 나타나 요귀에게 먹혔으며 해룡은 금방울을 구하려고 간신히 굴속을 기어 들어가 금선수부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 앞에서 피묻은 옷을 빼는 시녀를 만나 그녀가 준 보검으로 요귀를 찔러 죽였다. 해룡이 금방울을 구하고 공주와 시녀들을 무사히 데려오자 황제는 해룡을 부마로 삼았다.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던 막씨와 장부인은 금방울이 다시 돌아오자 기뻐하였다. 막씨와 장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선관이 나타나 딸과 아들을 각각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준다. 꿈을 깨니 금방울은 간 곳 없고 금방울의 껍질에서 벗어난 선녀가 앉아 있었다. 해룡은 나라의 변방이 다시 어지러워지자 순무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게 되었다. 장원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목계 되는 날 밤에,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고 족자로 인연하여 드디어 부자(父子)가 상봉한다. 이에 황제는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아서 해룡과 결혼(結婚)시켰다. 해룡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富貴功名)으로 일생을 누리다가 두 부인과 함께 백일승천(白日昇天)하였다.

▣ 핵심정리

■ 갈래 : 전기(傳奇) 소설, 영웅 소설, 도술 소설

■ 인물

- 금방울(옹녀) : 하늘에서 죄를 지어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남. 흉노(匈奴)의 침략 등 온갖 파란 속에서 금방울은 해룡을 도와 큰 공을 세우게 됨. 금방울이 인간의 액운이 다하여 탈을 벗고 절세미인이 되자 국왕이 중매하여 장해룡과 인연을 맺게 함. 금령은

선생에서 해룡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양태나 시련의 정도에서는 해룡보다 가혹하고, 신화적 자질은 훨씬 앞서는 비범한 존재이다. 해룡이 고귀한 신분이 장원의 만득자로 태어난 반면, 그는 천한 신분의 추녀이자 효부인 막씨에게 알로 태어난다. 금방울은 16년동안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변신하여 해룡을 도와 금령공주의 지위까지 오르고 해룡과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 장해룡 : 용왕의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남. 흉노의 침입을 물치고 국왕의 사위가 됨. 해룡은 공주와 금방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공주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고, 해룡과 금방울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 변씨와 소룡 : 해룡을 어려서부터 고난에 빠뜨리는 인물

■ 주제

-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 남녀결합과 부귀획득
- 금령과 해룡의 고난 극복과 부귀 획득 및 결혼

★ ‘방울’의 신화적 의미

‘방울’은 형태가 둥글고, 그 안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껍질을 깨고 나올 생명체가 잉태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생 신화의 ‘알’과 유사하다. 단단한 껍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재탄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자, 재생을 위한 시련을 형상화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굴 속에서의 ‘금기’와 같은 의미도 지니고 있다.

★ 상호보완적 영웅상

주인공 장해룡과 금방울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상호 화합과 보완으로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다. 해룡의 영웅적 활약이나 시련의 극복은 대부분 금방울의 조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해룡은 신화적 영웅이라기보다는 일상적 인물에 가깝다. 해룡은 명목상의 주체이고, 금방울은 내면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 영웅 의식과 한계

금방울의 도술 능력은 여성도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남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홍계월전>의 계월과는 달리, 금방울의 활약이 독자적이지 못하고 해룡을 돕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해룡과 금선 공주의 결혼이 금방울에게 비극적인 슬픔이 되지 않는 것 등은 여성의 피동적인 내조만을 중시하는 전근대적 가치관의 발로이며 제한된 여성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웅설화적 요소 : 고귀한 혈통(용왕의 아들과 딸) → 비정상적 출생(방울로 출생) → 비범한 능력(신이한 능력을 지님) → 어려서 버려짐(방울을 버림) → 구출 양육자를 만남(방울을 다시 데려옴, 버려진 해룡을 도둑이 데려다 키움) → 자라서 위기에 처함(해룡이 가족으로부터 구박 받고, 가출하여 요괴의 쫓김을 받음) → 위업 성취(해룡이 요괴를 물리치고 부마가 되어 금방울과 결혼하여 부귀를 누리다가 함께 승천함)

★ <금방울전>의 구조

<금방울전>은 배경 공간, 또는 고난과 행운이 교차하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순환이 나타난다.

해룡과 금령은 본래 동해용왕의 용자와 남해용왕의 용녀였는데, 인간계에서 '해룡'과 '금령'으로 환생한다. 용자와 용녀가 살던 곳은 수증계라는 비현실계다. 비현실계의 존재인 용자와 용녀가 현실계인 지상계에서 해룡과 금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지상계에서 살던 해룡과 금령은 이곳과 다른 지하계로 가서 요괴를 물리치고 금선공주를 구출해 데려왔다. 즉 해룡과 금령은 지하계에 가서 가난하고 비천하여 불행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 결과 해룡은 금선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어릴 때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나고, 금령과 혼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다. 방울의 모습으로 살던 금령은 탈각(脫殼)하여 미인이 되고, 황제의 양녀가 되었다. 그리고 해룡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해룡과 금령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지하계에 가서 빈천(貧賤)과 불행을 소거(消去)하고, 부귀와 행운을 획득·충족하고 돌아왔다. 따라서 완벽에 가까운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부모를 잃고 천대받던 해룡과 괴이한 모습으로 태어나 천대받던 금령이 지하계에 다녀온 뒤에 행복을 누리는 구조는, 인간의 생명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부귀·건강 등이 비현실계에 근원을 둔 상태에서 '현실계 → 비현실계 → 현실계'로 순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고난과 행운의 순환이 나타난다.

해룡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장삼의 양육을 받았다. 그런데 장삼이 죽은 뒤에, 그의 처 변씨의 계략에 빠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는다. 부마가 된 뒤에도 전장에 나가선 적의 계략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해룡은 금령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행운을 얻는다. 이처럼 해룡의 인생은 행운이 고난에 의해서 부정되고, 그 고난은 다시 행운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고난과 행운이 교차하여 순환한다. 그런데 해룡은 고난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금령의 도움으로 극복한다.

금령의 일생을 보면, 남해용왕의 딸이 과부 막씨의 몸에서 금방울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룡을 도와준다. 그 후에 해룡과 힘을 합하여 요괴를 물리치고, 여인으로 변신하여 해룡과 혼인한다. 금령의 일생 역시 행운이 고난에 의해서 부정되고, 그 고난은 행운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고난과 행운이 교차 순환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때의 고난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며, 행운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룡과 금령의 일생은 고난과 행운이 반복적으로 대립하면서, 보다 완전한 행복을 향하여 진행된다. 그러다가 모든 고난이 해결되고 행복이 절정에 이르러 완성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셋째, 변신을 통한 순환이 나타난다.

막씨의 절개와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자식을 점지하여 상을 주려 했다. 그때 용녀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발원(發願)하니, 옥황상제는 용녀를 막씨의 딸로 점지하여 방울로 태어나게 했다. 만일 용녀가 막씨의 몸에서 방울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과부가 딸을 낳은 데 따르는 여러 문제에 부딪혔을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것이다. 그리고 신행하다가 헤어진 전생의 남편 해룡을 찾는 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용녀는 금방울로 변신하여 출생했던 것이다. 용녀는 금방울로 변신함으로써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한 뒤에, 미인으로 변신하여 해룡과 혼인하고 행복을 누렸다. 이처럼 금방울의 일생은 변신순환(變身循環)하는데, 이런 구조는 도선사상(道仙思想)에 의해 치밀하게 구성된 것이다.

사람이 금방울로 변신하고, 금방울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실제 공간과 시간 속에선 성립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작품 끝 부분의 행복은 비현실적 상황인 변신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즉 비현실계의 용녀가 금방울로 태어나서 지하계에 가서 요괴를 퇴치하는 구조는, 비현실계와 현실계의 순환형이 변신순환형과 복합된 것이다.

이러한 순환은 하나의 현실을 폐기하고, 보다 새롭고 행복한 현실을 만들려는 재생적 순환의 의미를 지닌다. 재생적 순환은 인간이 제한된 현실 속에 살면서도 그 제약을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상상에 의한 것이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런 상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선사상과 불교사상, 유교사상, 무속사상, 그리고 시대성과 작가 및 독자들의 의식이 작용하여 한층 흥미롭고 복잡한 구성이 되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주인공 금령이 금방울 모양으로 태어나서 벌이는 신기담을 흥미 있게 전개해 놓은 전기 소설이며, 주인공은 삶이 '영웅의 일생'이라는 영웅 서사 구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권선징악, 고진감래의 내용으로 요괴를 퇴치하며, 주인공이 변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설화적 성격을 지닌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가치관은 해룡과 금령의 '남녀 결합'과 '부귀 획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금령전'을 쓴 작가의 가치관인 동시에 독자층의 행복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주인공의 적극적인 활동과 남녀 주인공의 행복한 결합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계층에 속하는 독자층 특히 여성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 해설]

막 씨가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남편의 혼령이 느닷없이 나타난 장면이다.

하루는 막 씨가 일만 가지 시름을 띠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초막<초가>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곧 삼랑이었다. 막 씨가 놀라서 물기를, “그대가 나를 버리고 나간 지 거의 수십 년이라. 간 곳을 몰라 의심하고 염려하는데 신령이 이르기를 난중에 죽었다 하매 꿈을 믿을 것이 아니로되 역력히 들었으므로 영연(靈筵)을 배설하였는데 의심컨대 살아 서로 보는 것입니까? 어찌 깊은 밤에 거취<행동>가 분명하지 아니합니까?”

삼랑이 목이 메어 이르되,

“과연 그대의 덕을 모르고 탕자<방탕한 사람>의 마음을 견잡지 못하여 그대를 박대<구박>한 죄로 하늘이 내린 재앙을 받아 난 중에 죽으며 후천에<저승> 가도 또한 죄인이라. 깨달으나 가히 미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치지 못할 바이오, 귀신의 무리에도 **참례하여<부끄러워>** 섞이지 못하고 **음풍에<어둡게>** 다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지극히 제사 지내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비록 **유명<산 자와 죽은 자가>** 다르기는 하나 그 감격함을 **사례<감사>**하고자 하노라.”

하고, **생시와<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이 **수작하다가<말을 주고받다가>** 돌아간 후 자주 왕래하여 몽중에 친밀함이 있었다. 막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며 마치 태에 아이가 노는 듯하여 배가 점점 불러 왔다. 심히 **고이하게<이상하게>**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는데, 열 달이 이르러서는 **해산<출산>** 기미가 있어 초막에 엎드려 있다가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으로서 금빛이 찬란하였다. 막 씨가 크게 놀라 고이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왔다.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벼이 떠다니다가 막 씨가 가는 것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왔다.

막 씨가 헤아리되,
‘나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니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이다.’하고 불을 땔 때에 아궁이에 두리쳤다가 닳새 후에 헤쳐 보니, 금방울이 튀어나오는데 상하기는커녕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향내가 진동하였다. 막 씨가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와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서 막 씨 앞에 갖다 놓았다. 막 씨가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문혀 오되 그 털에 솔잎이 있어 평소에는 반반하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추위를 당하여도 금방울이 굴러 품에 들어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찿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초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았다. 막 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초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울 정도로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가 낮과 같았다. 막 씨가 기이하게 여기고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초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잤다.

<중략 부분 줄거리> 동리에 사는 목손이라는 자가 금방울을 욕심내어 도둑질해 갔으나 금방울의 신통력으로 재앙을 받는다. 목손은 고을 수령인 장 공에게 참소하여 금방울과 막 씨가 옥에 갇힌다. 그러자 금방울의 조화로 장 공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부인이 막 씨를 놓아줄 것을 권하니 장 **공<대감>**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하였다.<먹고 잠을 이룬 이 평소와 같았다.>** 장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워<관아에서 관리한다는 표시>**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돈을 주어 일생을 평안하게 하였다.

차설.<이때.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할 때 흔히 쓰는 말 = 각설> 장 공이 뇌양현에 온 후로 몸이 편안하나 주야로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였다. 부인이 이로 말미암아 침석에 누워 위독하게 되어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밤낮으로 병자의 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첩의 팔자가 기박하여 한날 자식을 난중에 잃고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한 것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음인데 십여 년 동안 **존망<생존>**을 모르매 병이 **골수<뺨속>**에까지 스며들어 **명이<목숨>**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요?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하소서.”

하고 숨이 끊어졌다.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주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간호>**하였는데, 밖에서 금방울이 굴러 부인시체 앞으로 들어갔다. 모두 보니 방울이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가 놓고 갔다. 급히 집어보니 나뭇잎 같은 것인데 가늘게 보은초라 씩어 있었다. 장 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의 입에 넣었다.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었다. 장 공이 병세를 물으니 부인은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였다. 공이 방울의 전말을 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 후로 부인의 병이 과연 **평복(平復)하니,<회복>**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서 **재생지은(再生之恩)<살아난 은혜>**을 만만 사례하고 결의형제가 되었다. 그 후로는 금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공의 부부가 사랑하여 손에서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이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똑똑함>**이 사람 뜻대로 하였다. 이에 ‘금령(金鈴)’이라 이름하였다. 금령이 낮이면 제집에 갔다가 밤이면 돌아와 품에 들어와 잠을 자니 정의가 골육보다 더하였다.

하루는 금령이 무엇을 물어 왔거늘, 장 공의 부부가 고이하게 여기고 집어 보니 작은 족자와 같았다. 펴보니 작은 아이가 길가에 앉아서 우는데, 사면에 도적이 쫓아오고 남녀 두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며 울고 돌아보는 형상을 그렸고, 또 한 장수가 그 아이를 업고 시골집으로 가는 형상이 그려 있었다.

장 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가던 형상이로다.”

부인이 또한 울며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은 줄 아시나이까?”

장 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업고 마을로 들어가는 형상이라. 생각건대 누군가가 기르려고 업어 감이 확실하거니와, 금령이神通하여 우리가 설워하는 줄 알고 죽지 않은 줄만 알게 하고 있는 곳은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도 또한 하늘의 뜻인가 하노라.”

하고 침상에 족자를 걸고 보며 슬퍼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

그 후에 금령이 홀연 간데없이 사라졌다. 막 씨가 울며 **내아<관아의 안채>**에 들어와 금령이 간데없음을 이르니, 장 공 부부가 놀라며 슬퍼함을 마지아니하였다.

<뒷부분 줄거리> 금령은 해룡이 지하국 요괴에게 납치된 금선 공주를 구하는 것을 돕는다. 해룡은 부마가 된 후 전장에 나가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다. 이후 금령은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로 변신한 후 신통력을 잃게 된다. 금령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해룡과 혼인하였으며, 금선 공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영연: 죽은 사람의 영계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 배설: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칩떠서: 몸을 힘차게 솟구쳐 높이 떠올라서.

출제요소

대표적인 가정 소설이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인현왕후의 폐위)과 연결시켜서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 (풍간소설의 특징)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사씨남정기 작품해설

□ 줄거리

(1) 유연수의 출생과 사씨와의 결혼 : 명나라 가정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명신은 늦게야 아들 연수(延壽)를 얻는다. 유공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받으나 연소하므로 10년을 더 수학하고 나서 출사하겠다고 한다. 천자는 특별히 본직을 띠고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2) 사씨, 아들을 못 낳자 교씨를 권하여 첩으로 들임 : 사씨는 유 한림과의 금슬은 좋으나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한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한다. 유 한림은 거절하나 여러 번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로,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증오한다.

(3) 교씨, 아들을 낳고,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모함 : 교씨는 아들 장주를 출산하고는 자기가 정실이 되려고 마음먹고,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한다. 그 후에 사씨도 아들 인아를 출산한다.

(4) 교씨의 모함으로 사씨 폐출, 교씨 정실이 됨 : 교씨는 장래에 불안을 느껴 동청과 짜고 자신이 낳은 아들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인아 있으니 이제 장주 필요없다'는 누명) 뒤집어씌운다. 유 한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결국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맞아들인다.

(5) 교씨, 동청과 간통, 유 한림 유배시킴 : 교씨의 간악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의 전 재산을 탈취해 도망가서 살기로 약속한다. 동청은 유연수가 천자에 대해 불평한다는 소리를 엄 승상을 통해 고하게 하여 그를 유배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 한림을 고발한 공로로 태수(지방관)가 된 동청은 교씨와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6) 유 한림 소환, 동청 처형 : 조정에서는 태자 책봉과 엄 승상 처형 과정에서 유 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려, 충신을 참소한 죄로 동청을 처형한다. 유 한림은 비로소 교씨와 동청의 간계에 속은 줄 알고 죄를 뉘우친다.

(7) 사씨와 해후, 다시 정실로 :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사방으로 탐문하여 사씨의 행방을 찾는다. 한편 남편 유 한림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다. 사씨와 유 한림은 도중에 해후한다. 그리고 유 한림은 사씨에게 전죄를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 핵심 정리

★ 제목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미

사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 한림이 조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해 '남정'이란 의미에 더 중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의미)

★ 창작 동기와 주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반대하다 귀양을 가게 된 지은이가 숙종의 잘못을 풍간(諷諫: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배지에서 지은 것으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 소설

또, 작품 창작 동기를 왕에 대한 풍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권선징악을 통한 일부 다처 제도 비판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 소설의 주제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처첩 사이의 갈등'으로 보아, 쟁충형(爭寵形: 서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 가정 소설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강조된 것은 여인의 덕행이다. 특히 사씨가 남편 한림에게 소실을 얻어 아들을 낳도록 주선해 준 일이나, 교씨의 간교로 인해 쫓겨났을 때 친절로 가지 않고 시부모의 묘소에서 지낸 일 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덕(婦德)을 실행하려는 강인한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제는 쟁충이라기보다 오히려 덕행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	사씨남정기
인물	숙종 인현왕후 - 아들이 없음 장희빈 - 아들 균(경종)	유연수 사씨(처) - 아들 인아 교씨(첩) - 아들 장주
사건	장 희민의 무고(誣告) → 인현왕후의 폐위 → 인현왕후 복위	교씨의 모해 → 사씨 추방 → 사씨의 복권

■ 갈래 : 고전소설, 가정소설, 풍간(諷諫)소설, 목적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 배경

■ 공간적 - 중국, 금릉 순천부 유씨 집안, 사씨의 남정 행로

■ 시간적 - 유연수의 출생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 사상적 - 유교적 세계관, 권선징악

■ 특징

■ 조선조의 일부다처제가 빛은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작품

- 숙종(유연수)이 장희빈(교씨)에게 홀려 인현왕후(사씨)를 쫓아낸 것을 풍자, 숙종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목적소설
- 영웅소설이 고전소설의 큰 흐름이라면 이 작품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소설의 영역을 개척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당시의 제목이 대개 '전(傳)'으로 끝난 것에 비해 특이한 제목이다.
- 사씨는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적극성 보여줌. ('이생규장전'의 처녀, 춘향, 박씨)
- 주제
 -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謝氏)의 고행(苦行), 권선징악(勸善懲惡)
 -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권선징악

■ 등장인물

사씨(사정옥)	유연수의 부인.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후덕한 인품을 지니고 있음(유교적 여성의 전형.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임씨	유연수의 첩. 남경장사가 버리고 간 사씨의 아들을 구한 인물. 인덕과 자색 뛰어남.
유연수	세 부인의 남편. 15세에 등과한 유능한 인물이지만, 교씨의 흥계에 넘어가 귀양가게 됨.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사씨와 다시 행복하게 삶 (5세에 등과했지만 판단력이 부족함. 가부장적 사회에서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닌 전형적 인물. 본성은 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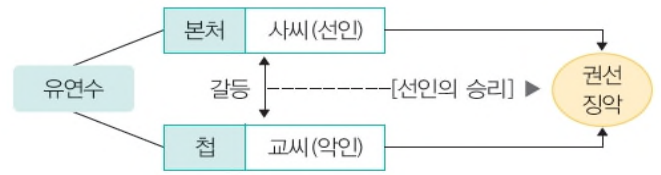


교씨(교채란)	유연수의 첩.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죽임을 당함(욕망 충족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악인의 전형.)
동청	교씨의 정부(情夫). 교씨와 내통하나, 계책을 꾸며 유연수를 귀양 보낸 악인의 전형. 냉진과 교씨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죽음.
납매, 십낭	교씨와 내통하면서 교씨의 악행을 조장하고 유인함.
엄송	유한림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서는 승상. 간신.

■ 구성 : 평면적 구성-시간의 순서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 발단 - 명나라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가 됨
- 전개 - 유 한림과 결혼한 사씨는 애를 낳지 못하자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함
 - 위기 - 교씨는 한림에게 사씨에 대한 온갖 참소를 함
 - 절정 - 교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 사씨를 모함하여 정실이 된 후 한림을 참소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름
 - 결말 - 교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한림과 사씨가 해후하여 교씨를 처형함

★작품 point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때,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로, 후처(교씨)의 모략으로 고생하던 본처(사씨)가 고생 끝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담고 있다. 나아가 조선 사회의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숙종 때 김만중이 유배지(남해)에서 지은 소설로, 인현 왕후 폐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즉, 장희빈 사건과 유사하여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부다처의 가정에서 일어난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즉, 교씨와 동청 등의 음모자들의 활약과 적나라한 욕망의 표출,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정실부인, 그리고 그 가운데 농인 시비들의 역할 등은 후대 가정 소설의 모형이 되었다. 숙종은 유연수, 인현 왕후는 사씨, 장희빈은 교씨로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실부인 사씨를 고매(高邁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남)한 부덕(婦德 부녀자의 아름다운 덕행)의 소유자로, 첩 교씨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립적 인물 설정은 여주인공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현 왕후를 옹호하다 귀양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씨 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가치관이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한계성을 보인다.

[본문 해설]

훌륭한 재상(유 소사)이 자신의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는 장면이다.

두 부인<유 소사의 누이>이 이 말을 듣고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다.

“몇 년 전 우회암에 있는 여승 묘해가 나에게 말하기를 신성현의 사 소저<아들의 신부 후보>는 용모가 아름다울뿐더러 덕성까지 갖추어 참다운 요소숙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라버니께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 소사<벼슬 이름>가 말했다.

“누이와 매파<중매쟁이>의 말을 들으니 그 처자가 뛰어난 듯하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도다. 그러나 혼인이란 큰일을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두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은 방법이 있나이다. 내 집에 당나라 사람이 그린 귀한 **관음화상<관음보살의 그림>**이 있는데 마침 우화암으로 보내려고 하는 터입니다. 묘혜에게 이 화상을 주어 사 씨 집으로 가서 관음찬(觀音讚)*을 받아 오게 하면 사 소저의 재주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묘혜가 소저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림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그 글을 보면 사 소저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소사가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묘한 생각이로다.”

[장락 부분 줄거리] 묘혜는 유 소사의 청을 받아들여 사 급사의 집으로 가서 사 소저를 만난 후 부탁하여 관음찬을 받아 유 소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유 소사가 물었다.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묘혜가 말했다.

“그 소저는 족자 속의 사람과 같더이다.”

그러고는 급사 부인과 소저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낱낱이 말했다. 유 소사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족자를 열고 글을 보았다. 글 뜻이 맑고 아름다우며 **필법<글솜씨>**이 훌륭하여 흡잡을 곳이 조금도 없었다. 또 소저의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관음보살은 성스러운 여인이라. 생각하건대 주나라 때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인데도 공허한 산속에 외롭게 있음이 어찌 본심이리오. 순임금의 신하였던 후적은 농사를 일으켜 세상을 도왔고, 백이와 숙제는 충절을 지켜 굶주려 죽었으니, 도의 근본은 같지만 다만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 **<훌륭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도 그 근본은 같다. 똑같이 훌륭한 것이다.>** 내 화상을 바라보니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사람됨을 대강 알지라.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긴 대나무 수풀에 하늘이 찬데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세상 만물 누가 아니 공경하리오. 꽃다운 이름이 오랜 세월 남으리다. 내 그 덕을 찬양함에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구나. **<훌륭한 관음보살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그림을 보니 슬프다.>**

유 소사가 이 글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말했다.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예로부터 관음찬을 지은 자가 많았지만 일찍이 이렇게 잘 지은 경우는 없었도다. 열세 살 어린 여자의 식견이 이 정도일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여자가 진정 내 아들의 신부감이니 어찌 혼인시키지 않으리오.”

이윽고 **한림<아들의 벼슬 이름>**을 불러 글을 보여 주며 말했다.

“네 능히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한림이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묘혜가 하직하며 말했다.

“**소승<중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 귀댁의 혼사를 직접 봐야 마땅하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탓에 남악에 계시는 스승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내일 남악으로 떠나고자 하옵나니 청컨대 관음화상을 암자에 모시고자 하나이다.”

두 부인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니 섭섭하지만 어찌겠소. 이 화상은 애초에 스님께 시주하였으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오.”

유 소사가 비단을 주며 은혜에 답하니 묘혜가 **사례하고<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상의하며 말했다.

“매파를 사 씨 집으로 보내 청혼하리라.”

즉시 매파 주 씨를 보내니, 주 씨가 사 씨 집에 가서 **급사<사 소저 아버지의 벼슬 이름>** 부인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유 소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풍채가 세상에 제일인 까닭에 많은 매파가 모여들었지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사옵나이다. 그러는 중 귀댁 소저의 용모가 아름답고 덕이 밝음을 아시고는 혼인을 청하십니다. 소저께서 유 씨 집안과 혼인을 하시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됨과 동시에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급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딸의 방으로 가서 소식을 알렸다.

“네 비록 **규중 여자<일반 여자>**지만 총명하니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소저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소사는 현명한 재상이라 하니 그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그런데 매파의 말을 들으니 부귀와 용모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밝은 덕을 소중하게 간직한 우리 조상을 욕보이는 말이니 혼인이 마땅치 않은 듯하나이다.”

부인 또한 소저의 말을 바르게 여겨 주 씨에게 말했다.

“유 소사께서 딸의 재주와 용모를 잘못 들으시고 구혼하시는 것이라. 아이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배운 것이 없으니 귀한 집안과 혼인함이 마땅하지 않은지라. 돌아가 이대로 고하라.”

주 씨가 여러 번 간청했지만 부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대로 고했다. 유 소사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 씨가 사 씨 집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묻고는 말했다.

“내가 변변치 못했도다.”

즉시 주 씨를 물리치고 신성현의 지현*을 찾아가서 말했다. **<사 급사 집안에 좀 더 예의를 지키기 위해 사 급사가 사는 지방의 사또를 증매쟁이로 보내려 하고 있다.>**

“사 씨 집과 혼인하고자 매파를 보냈더니 회담이 여차여차한 것을 보니 매파가 실수를 한 탓이라. 이제 선생이 나를 위하여 사 씨 집을 방문해 주면 고맙겠소.”

지현이 말했다.

“어찌 선생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리오. 사 씨 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리까?”

유 소사가 말했다.

“먼저 사 급사의 맑은 덕을 칭송하고 다음으로 소저의 덕성을 칭송하면 반드시 혼인을 허락하리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관음찬**: 관음보살의 공덕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나 글귀. * **태임**: 문왕의 어머니로 성품이 뛰어나고 덕이 높았으며 특히 자식 교육에 남달랐다고 함. * **태사**: 문왕의 아내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 정성이 높아 어머니로서 칭송이 높았음. * **지현**: 현의 으뜸 벼슬아치.

출제요소

송사 소설의 특징을 파악한다. 사건의 핵심은 선옥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사라지고 가짜 남편이 나타나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가짜 남편의 똑같은 외모 때문에 진짜 남편의 부모(시아버지, 김 씨, 장 씨)까지도 가짜 남편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명한 며느리(이 씨)는 가짜 남편을 알아차린다. 이런 특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화산중봉기 작품해설

★ 장르상 특징

송사소설: 가짜 김선옥과 진짜 김선옥을 구별해 내는 일은 진어사의 활약에 의해 구체화 된다. 진어사가 진짜 김선옥에게서 자신이 진짜라는 자백을 얻어내는 장면은 무려 여덟 단계까지 밟고 있어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

열행록적: 열행(烈行)은 여자가 정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 김선옥의 등장으로 이능옥은 시련을 맞이한다. 결국 이능옥은 시집에서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자결하라는 강요를 받기에 이르지만 이능옥의 진실한 면모는 진어사의 등장으로 해결

영웅소설: 이소설의 주인공 김선옥과 이능옥은 적강현몽(謫降現夢)으로 출생한 영웅이다. 결말 부분에서 왜구가 침략했을 때 김선옥은 용맹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뛰어난 공을 세운다.

가문소설: 가문 내 구성원간에 얽힌 갈등 구조를 바탕

★ 핵심 정리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전기적, 비현실적, 영웅적
- 갈등: 선옥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남자와 가문 내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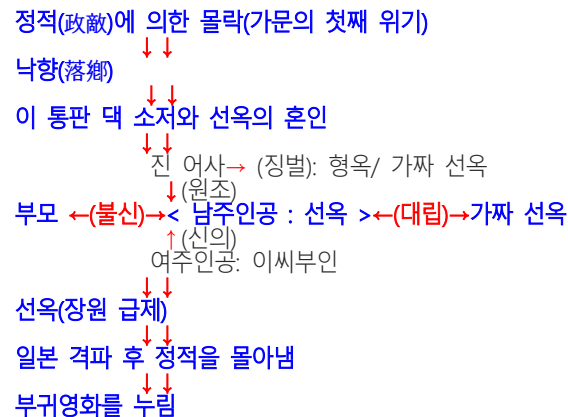
- 송사(訟事)를 모티브로 함
- 당대의 사회 상황이나 생활상, 가치관등을 재판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냄
- 전기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으며 사건과 인물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음

■ 주제: 이능옥의 곧은 절개와 진어사의 공평한 판단

■ 인물

- 선옥: 사소한 오해로 인해 집을 등질만큼 심성이 여린 인물 (고전 소설 주인공으로서 특이한 인물행위)
- 이 통판 댁 소저(이씨 부인):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현명한 인물 (시가 가문 전체를 상대로 해서도 뜻을 굽히지 않을 만큼 지조 있는 여인)
- 진 어사: 용의주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
- 형옥: 가짜 선옥을 데려와 진짜라고 우겨 재산을 차지하려는 부정적 인물

★ 서사 구조



□ KEY POINT

★ 이능옥이 처한 상황(조선시대 사대부 부녀자의 삶과 비교)

이능옥은 형옥이 데리고 온 선옥이 가짜임을 단번에 안다. 그러나 그녀의 시가와 친정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지아비를 섬기지 않으려는 못된 여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능옥은 절개를 결코 굽힐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짜 선옥이 그녀와 동침하려는 것을 번번이 회피한다. 급기야 이능옥의 친정 아버지는 이능옥에게 자결을 강요하나 그녀는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고 버틴다. 이능옥의 행동은 지아비와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꺾고 물리치는 사대부 부녀자의 모습을 반영한다. 특히 이능옥의 성격은 흔히 나약하고 삶에 곧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신의 앞길을 가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옹고집전>과 비교하여 가짜 선옥이 만들어지는 장면의 특징

<옹고집전>은 도사가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지만 <화산중봉기>에서는 형옥의 음모로 김홍룡이라는 남자가 김선옥 흉내를 내게 된다. 따라서 가짜 옹고집은 술법에 의해 진짜 옹고집보다 완벽하게 옹고집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김홍룡은 아무리 김선옥 행세를 하려고 해도 몇몇 미흡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의 하인 친척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모두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을 받지만 김홍룡은 이능옥에 의해 가짜임을 의심받게 된다. 이렇게 그 소설상의 구조가 다른 것은 <옹고집전>에서는 옹고집을 징치(懲治)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화산중봉기>에서는 이능옥의 지인지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 줄거리

선옥의 조부 김완국이 모함을 받아 가족들은 안동으로 내려오게 된다. 김선옥은 십세 전에 사서삼경과 백가서를 통달하고 큰 뜻을 품은 인물이지만 자신의 부인이 방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슬픔으로 투신 자살을 시도 한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집을 떠나게 된다. 이 후 팔촌인 형옥은 김선옥과 용모가 비슷한 자를 데려와 그가 선옥임을 주장하지만 여 주인공인 이능옥은 그가 선옥이 아님을 안다. 친부모조차 진짜 선옥으로 믿는 고립무원의 막다른 궁지에 몰리고 시가에서도 자결을 강요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능옥은 자신이 헛되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관을 참을 것을 다짐한다. 이 일을 나라에서도 알게 되어 진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진어사는 함경도 단천에서 선옥과 흡사한 김화상을 만나 자신이 정선옥이라는 실토를 받아내고 선옥을 찾아내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김선옥은 일본 침략을 제압하고 김선옥은 문하시중평장사에, 이능옥은 정렬부인에 책봉되어 부귀를 누리다가 부부가 80세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선옥이 가출하게 된 원인이 된 이능옥과 같이 있던 남자 인데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이남자가 선옥의 도복을 짓다가 옷의 길이를 재어보기 위해 옥란에게 그 도복을 입혔던 것이고, 이에 옥란이 장난으로 벽에 걸린 선옥의 갓을 썼던 것인데 이를 선옥은 이남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본문 해설]

이 씨의 남편인 선옥이<남자다>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다. 그런데 부인은 나타난 남편이 가짜라고 하고 남편의 부모<부인 입장에서 시부모>는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결국 관가의 송사<재판>로 이어진다.

처사<선비, 여기서는 시아버지를 지칭한다.>가 즉시 집에 기별하여<연락을 하여> 부인과 자부*로 하여금 송정(訟庭)*에 들게 하고, 부사<사또>가 관비(官婢)<관가의 종>로 하여금 장 부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저기 섰는 자가 분명 자식인가?”

장 씨<시어머니> 고하였다.<아뢰었다>

“천룡이 지중하매<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매우 깊은데> 어찌 타인을 자식이라 하오며,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을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르리까?”

부사가 이 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제 너의 구고*가 다 분명한 자식이라 하거늘, 네 어찌 홀로 부군<남편>이 아니라 하니, 비록 부부가 오류에 들었으나 부자는 오류의 으뜸이라.<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부부의 인연보다 중하다> 어찌 그 부모의 정리와<마음에 따른 이치> 같으리오? 너는 모름지기<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구고의 뜻을 거역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이 씨가 고하였다.

“부부의 정리는 부모의 정리에 지나지 못하리니와,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사가 노하여 말하였다.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기른 자식의 얼굴을 어찌 모르고 네 홀로 안다고 하니 이것은 과연 병자의 말이로다.”<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모르고 너만 남편의 얼굴을 안다고 하니 너 병이 있는 것 같다.>

이 씨가 여쭙되,

“병자 갈사오면 아무 정신이 없사옵지라. 저놈의 욕됨을 면치 못하옵 것이요, 침식과 행동거지를 어찌 평상시와 같이 하오리까?<내가 병이 있으면 아무 정신이 없을 것이고 저놈(가짜)에게 욕을 보았을 것이며 평상시와 같이 행동을 못 했을 것이다.> 분명 부군이 아님은 위에 있는 하늘이 굽어살피시오니, 바라건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하시어 김 씨의 인륜을 찾게 하오시고 여기에서 신(臣)<이 씨 자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부사가 양편의 말을 듣고서 진가(眞假)<진실>를 분변치 못하고 판결하여 이르기를,

“이 송사<소송>는 진짜 선옥을 보기 전에는 귀신도 결정치 못할 지라. 이 씨가 고한 바와 같을진댄 진짜 선옥이 아닌가 하며, 김 씨 부부가 고한 바를 취택(取擇)하면<받아들이면> 분명한 선옥인가 하노니, 김 씨는 저 선옥을 다시 취처(娶妻)케 하여<이 씨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 가도(家道)<집안>를 안정시키고 이 씨는 본가<친정>에 가 있어 진정한 선옥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림이 의당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처사 부부가 칭사(稱謝)하고<판결에 대해 감사하고> 이 씨도 또한 배사(拜謝)하며<감사의 말을 하여> 즉시 모든 사람이 다 물러났다.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어서 양쪽 모두 큰 불만은 없다.>

<중략 부분 줄거리> 송사가 조정에도 알려져 임금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 여사를 파견한다. 여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끝에 진짜 선옥을 찾아낸다. 여사는 선옥을 설득하여 함께 안동으로 내려오고 다시 송사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선옥의 팔촌인 형옥이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가짜를 진짜 선옥인 것처럼 내세웠음이 밝혀진다.

이때 여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가름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 씨가 부녀의 예로 보니 여사도 선옥과 이 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여아<여자아이, 이 씨>는 어찌 가부(家夫)<남편>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 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 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소이다.”

여사가 그 영민함을 찬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가치<부인>가 나의 여아<딸>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정회도> 피려니와<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거니와> 우선 내가 절에서 떠난 연고<이유>를 자세히 하여 피차<서로>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남자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수삽(羞澀)*하십니까?”

선옥이 그제야 남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 모월 모일 야(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방>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남자 옷을 입은> 한 남자와 더불어 기롱(譏弄)*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매,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陋名)이 나타나 나의 가정(家聲)이 더러워질 것이다.<가문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원통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 하고 강변에 나가 굴원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굴원이라는 사람처럼 죽으려 하다가> 도로 절을 향하여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 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댄 어찌 실가(室家)<가정>의 낙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 하여 그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허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 대사의 상좌(上佐)<제자>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증적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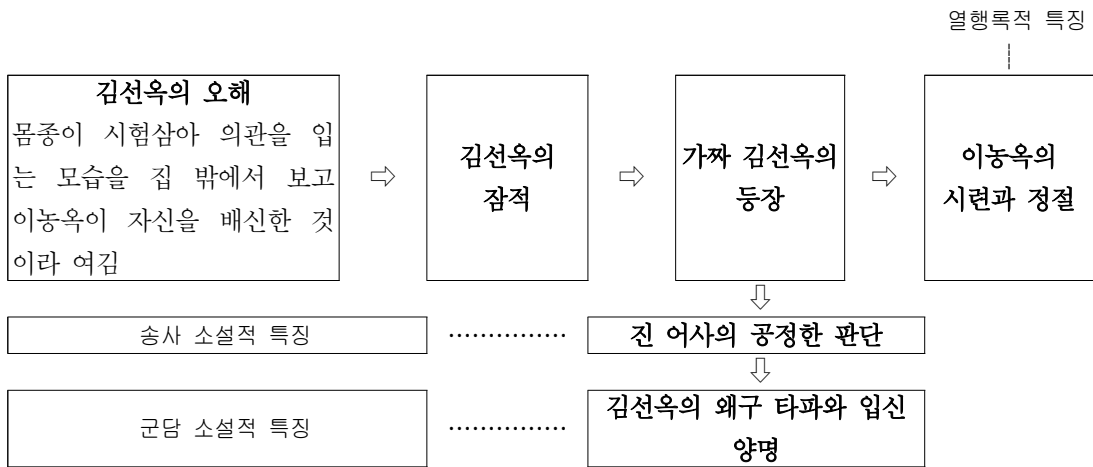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댄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訟庭)<송사를 보던 법정>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청하(廳下)<대청 아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 년 전 모월 모일 야(夜)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만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여종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이 씨>**가 **공자<선옥>**의 **도복<옷>**을 지으시매 앞 뒤 **수품<옷 사이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것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께 여쭙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나이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이 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 * 자부: 며느리.
- * 송정: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 * 구고: 시부모.
- * 수삼: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주저함.
- * 기롱: 실없는 말로 놀림.

• 작품 한 눈에 보기



출제요소

가정 소설과 영웅 소설이 결합된 특이한 소설이다. 전반부는 계모의 모함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후반부는 전형적인 영웅소설로서의 특징을 이해한다.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후반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줄거리를 반드시 숙지해 놓아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어룡전 작품해설

- 계모형 가정소설과 영웅소설의 결합

계모형 가정소설 (전반부)	어 학사의 아들 용(龍)과 딸 월(月) 남매는 계모 강 씨의 학대를 받아 쫓겨나게 됨
----------------	---

군담형 영웅 소설 (후반부)	어룡이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을 배운 끝에 명장이 되어 북쪽의 오랑캐를 무찌르고 승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림
-----------------	---

■ 감상의 길잡이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계모형 가정소설에 속하는 작품이나, 전반부는 전형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성격을 띠지만, 후반부로 가면 영웅 소설의 성격이 짙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가정 소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 줄거리

송나라 때 어 처사는 부인 성 씨와의 사이에 딸 월(月)과 아들 용(龍)을 두었다. 성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어 처사는 강 씨를 후실로 삼는다. 품성이 간악한 강 씨는 재물을 낳은 후 용과 월을 해치고자 음모를 꾸민다. 어 처사가 이부상서가 되어 상경하자, 강 씨는 두 남매를 내쫓는다.

남매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방황하다가, 용은 통천도사를 만나 도술과 무예를 배우게 되고,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된다. 어 상서는 벼슬을 사양하고 본가에 내려와, 남매가 쫓겨난 사실을 알고 그들을 찾아 나선다.

월이 17세가 되니, 윤 시랑은 그녀를 임상서의 아들 임선과 혼인시킨다. 임선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고 어 상서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다. 이때, 북 흉노가 중원을 침공하니, 용은 도사의 지시를 받고 용천검과 용인갑을 얻어 출전한다. 용이 적장을 베어 격퇴시키고 나아가 천자를 뵈니, 천자는 크게 기뻐하여 용을 좌승상으로 삼고, 임선을 우승상으로 삼는다.

몇 년 동안 남매를 찾아다니던 어상서는 기이한 꿈을 꾸고 고향에 돌아와 용의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용과 상봉한다. 어상서와 용은 월의 소식을 여기저기 묻고 다니는데, 우연히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된 임상서가 월의 소식을 전해준다. 그리하여 어상서는 그리던 남매를 다 찾게 된다. 계모는 양화(楊華)를 입어 죽고, 용은 이복동생 재룡을 찾아 형제의 의를 굳게 한다. 이후 용은 공주와 혼인하여 5남 1녀를 얻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고 화목한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린다.

■ 핵심 정리

- 갈래 : 가정소설, 영웅소설
- 제재 : 어룡의 일대기
- 주제 : 계모의 학대로 인한 가정의 비극
- 구성 : 전반부-계모형 가정소설 + 후반부-영웅소설

■ 특징

-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드러남
- 시간 순서에 의한 사건의 전개
- 사건의 요약적 서술
- 인물 간의 갈등이 역동적으로 전개됨

1) 양화 : 지은 죄의 양갈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작품의 이해와 감상

창작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이후의 작으로 추정되며, 중국 송(宋)나라가 배경이다. 계모로 인하여 전처소생의 남매가 쫓겨나고, 이들 남매가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다시 가정의 화합을 이룬다는 내용의 가정 소설이다.

그러나 기존의 계모형 소설과는 달리 계모와 전처 자식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과 영웅소설의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작품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인공 용과 월이 축출되는 부분은 계모형 소설의 형식을, 용이 온갖 고생을 겪다가 도승을 만나 무술을 익히고 전란에서 공을 세우는 부분은 영웅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모형 소설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무능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작품에서는 부친이 축출된 자녀를 찾아 나서는 적극성으로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계모의 영입에서 빚어지는 가족갈등을 계모형 가정소설의 상투적 도식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갈등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색 없이 모든 문제를 권선징악적 도덕률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계모의 악과 전처자식의 선이 한층 절대화되면서, 선악의 극단적 대조와 감정의 무절제한 노출로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크게 강화되어 있다.

이렇듯 주인공의 무용담(武勇談)과 가족들의 이합(離合) 과정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계모와 전처 자식의 갈등이라는 본래적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작품의 주제도 상당히 흐려지게 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 더 알아봅시다.

* 양풍운전(梁風雲傳)과의 비교

이 작품은 계모로 인하여 전처 소생의 남매가 쫓겨나고, 이들 남매가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다시 가정의 화합을 이룬다는 내용의 가정소설이다.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작품은 <양풍운전(梁風雲傳)>과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다음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첫째, <양풍운전>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계모 송 씨의 계략에 빠져 직접 남매를 쫓아내고 박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어룡전>에서는 아버지가 쫓겨난 자녀를 찾아 나서는 행동력을 보인다.

둘째, 가화(家禍)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남매가 선

계를 다녀오는 등 전기적 수법을 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의하여 해결하게 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셋째, 계모의 죄를 벌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풍운전>의 송 씨는 사사(賜死)된다. 이에 반해 <여룡전>의 강 씨는 양화를 입어 죽지만 그의 소생 재룡은 이복형 용의 후의를 입어 거두어지고 있다.

[본문 해설]

어 **학사<관직 이름>**가 매양 월의 남매를 위로하며 세월을 보내더니, 이때에 학사의 **원근 봉우<멀고 가까운 친구>**들이 자주 권하여 왈,

“학사가 평생을 어찌 홀로 지내며, 또한 가내 주장이 없으니 허다 만사를 누구에게 맡기며, 또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무엇하리오. 과도히 고집 말고 마음을 고쳐 생각하여 **존문<尊門>**가문의 어진 숙녀를 가리어 재취하면 부인 없는 자녀도 성취할 것이요, **가도<집안>**도 평순할 것이니, 각별히 깊이 헤아려 숙녀를 구하라.”

권하니, 학사 **대 왈<답하여 말하길>**

“제형의 권고하는 말씀은 내 어찌 마땅한 줄을 모르리오마는 자녀 남매를 두었으니, 이 또 사람을 취하여 어질면 그만이니와 만일 불행하면 미거한* 자녀들로 하여금 어찌 보게 하리오.”

한대, **당상 제인<대청 위의 모든 사람>**이 대 왈,

“남의 집 처자의 선악(善惡)을 자세히 말하리오마는 그런 염려는 마시고 속히 정혼하여 가내 주장을 삼게 하소서.”

학사 난처하여 허락지 못하니, 모두 이르되,

“형이 우리 **강권<강하게 권하는>**하는 말씀을 끝내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니 극히 애달아하나이다.”

학사가 묵묵부답하다가 마지못하여 허락하니, 모두 즐기니라.

이때 호람 땅에 강 **시랑<관직 이름>**이라 하는 사람이 있되, 여식 하나를 두고 혼처를 구한단 말을 듣고 즉시 **매파<중매쟁이>**를 보내어 청혼한대, 강 시랑이 학사의 학행이 높음을 들었는 고로 마음에 즐겨 허락하니, 학사가 기뻐하여 **택일하여<결혼 날짜를 정하여>** 맞을새, 혼례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 자녀를 데리고 부인을 생각하며 못내 슬퍼하니, 월이 **비감<悲感>**<**슬픈 마음**> 중이라도 부친을 위로하여 만류하니, 비록 여아<여자 아이>라도 죽히 어른을 당할래라.

이러구러 여러 날 만에 강 씨를 데려오니, 얼굴은 비록 고우나 **본성이 강포하여<성격이 나빠서>** 평생을 **해코자<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학사가 **매양<매번>** 월의 남매를 불쌍히 여겨 슬퍼하며 사랑하는 양을 보고, 강 씨 속마음에 시기하여 은근히 해코져 하여 학사 보는 데는 월의 남매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체하며 음식을 좋아 먹으며 각별 위로하니, 학사가 강 씨를 사랑하여 모든 일을 다 맡기는지라.

이러구러 강 씨는 잉태하여 십 **삭<달>** 만에 아들을 낳으니 학사가 극진히 사랑하며 월의 남매 우애 극진하니, 강 씨 속마음에 교만하여 **비복<중>**이라도 일절 엄하게 하니, **뉘 아니 두려워하리오. <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의 개입>**

이때 월의 나이는 십사 세요, 용의 나이는 팔 세라. 강 씨 낳은 아들 이름은 재룡이니, 아직 **강보<보자기>**에 있는지 라. 강 씨 마음에 매양 월의 남매를 해코져 하나 틈을 얻지 못하여 하더니, 일일은 한 **제교<제략>**를 생각하고 바늘을 끼어 아이 엽는 천의에다 찢러 놓고 월을 불러 재룡을 업히고 학사를 청하여 음식을 권하더니, 이때 밖에서 재룡의 울음소리가 들리는지라. 강 씨 거짓 놀래어 내달아 아이를 앓아 업고 들어오며 왈,

“네가 아이를 보면 항상 놀래어 이렇듯이 울린다.”

하며, 젖을 물리고 학사 보는 데 천의를 벗기는 체하고 바늘을 감춘 후 아이를 안아 내니, 볼기 밑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강 씨 또한 놀라는 체하고 피 흘리는 데 살펴보니 바늘로 찢린 흔적이 완연하거늘, 학사 놀라 연고를 모르더니, 강 씨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며 왈,

“이러한 흉측한 **변고<나쁜 일>**가 어디 있으리오.”

하고, 줄줄이 밀치고 왈,

“다만 오늘날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종종 있으나 매양 계모라 하여 허물이 첩에게 미칠까 하여 밝히지 아니하였삽더니, 이러한 줄이야 어찌 알았사오리까.”

하고, 아이를 안고 **침금<이불>**을 덮고 누워 슬퍼하는 양을 보이거늘, 학사가 다시 생각하니 바늘에 찢린 자국은 확실하나 바늘은 없으니 **고이하나<이상하나>**, 월이 어찌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리오. 또한 전일에도 여차한 일을 보지 못 하였으니, 고이하다 하고 부인을 개유하여* 왈,

“이것이 다 자식이 어린 탓이니, 깊이 헤아려 두루 생각하면 전혀 허물이 없을 것이니 부디 안심하라.”

하고 나아오니, 월은 그런 사정을 어찌 알리오.

아이를 무단히 데려가매, 마음에 불안하여 용의 옷을 고쳐 입히며 처량히 앓았거늘, 학사가 그 거동을 보고 **재취<재혼>**를 무수히 한탄하더라.

강 씨 또 한 괴를 생각하고 이웃집 노파를 청하여 혹 장물도 주며 음식도 주어 **치사<칭찬, 혹은 사례함>**한 후에 은근히 이르되,

“내 집에 쥐가 많아 민망한지라. **비상<독약>**을 조금 사다 주면 쥐를 처치하겠노라.”

하고, 그 노파에 값을 후히 주니, 노파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사 왔거늘, 강 씨 받아 간수한 후, 하루는 몸이 불편하다 하고 월이로 하여금 음식을 감검*하라 하니, 월이 모친의 병을 위로하며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 드리니, 강 씨 저 먹은 음식에다가 죽지 아니할 만치 비상을 타 두고 학사를 청하여 한 가지로 먹기를 청한대, 학사가 들어와 상을 받은 후 강 씨를 자주 권하매, 마지못하여 일어나 두어 술이나 먹더니, 홀연 역취하여 사방으로 뒹굴며 먹은 음식을 토하고 기절하거늘, 학사가 황망하여 토한 것을 바라보고 음식한 시비를 잡아내어 엄하게 다스리며 신문하니, 시비 등도 천만 애매한지라, 죄를 면코자 하여 아뢰되,

“오늘 음식은 **소비<중이 자신을 낮춰 지칭하는 말>** 등이 아니하옵고 소저가 친히 감검하였으니, 다시 발명하여 아뢰올 말씀 없나이다.”

한대, 학사가 괴히 여겨 대강 **치죄<죄를 묻고>**하여 내치고
부인을 위로하니, 강 씨 왈,

“첩이 이 집에 있다가는 원통히 죽을 뿐 아니라 무죄한 어린
것을 비명에 죽일 것이니, **상공<대감>**은 당장 치행하여* 친
정으로 보내어 불쌍한 목숨을 살리시옵소서.”

하며, 일어나 약간 **세간<살림살이>**을 내어 짐을 매거늘, 이
때 월이 들어와 울며 여쭙오되,

“음식을 잘 살피지 못하옵은 다 소녀의 죄로소이다. 어머니
은 안심하옵소서.”

하니, 강 씨 큰 소리로 대질 왈,

“아무리 남의 자식인들 계모라 하고 우리 모자를 기어코 해
코자 하는구나. 내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 모자가 비명에 죽
을 것이니 어찌 잠시인들 있으리오.”

- 작자 미상, <어룡전> -

- * 주장: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또는 그런 사람.
- * 미거한: 철이 없고 사리에 어두운.
- * 개유하여: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일리.
- * 감검: 잘 생각하고 검사함.
- * 치행하여: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하여.

출제요소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홍보가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흥부가'는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작품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 서민들의 부(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체 줄거리에 흐르는 소재는 '제비와 박'이 중심이 되며, 선량한 아우와 심술궂은 형을 등장시켜, 유교의 근본 사상의 하나인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윤리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제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빈궁의 문제이다.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 후기 사회는 격심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흥부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잠시 죽는 모습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당시 사회의 현실과 관련시켰을 때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박을 타 보니 금은 보화와 쌀이 나오고, 그 쌀을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어 본다는 것은 당시 서민들의 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판소리는 창자인 광대와 고수가 성립시키는 소리판에 청중이자 관객인 감상자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예술 양식이므로, 그 삼자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연희할 수 있다. 위의 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자는 발랄한 속어, 재담 등을 구사하거나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반복하거나 의성, 의태어로 사실감을 높이기도 한다. 이 작품 속에는 당시 민중들의 웃음과 해학이 들어 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 현실도 엿 볼 수 있다.

'흥부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부분은 흥부가 고난을 겪다가 제비 다리를 치료해 주는 내용이며, 뒷 부분은 흥부가 박을 켜서 복을 받고 이를 흥내 낸 놀부는 박을 켜 화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흥보가는 일명 박타령이라고 하는데 그 박은 바로 조선 시대의 민중 다시 말해서 일반 서민들의 가장 열망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박 속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왔다는 상상력은 비현실적이지만, 당대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던 절대적 빈곤과 그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富)에 대한 염원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경우, 오히려 강한 현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판소리(판소리 사설), 구비 문학, 적층문학, 유동문학
- 작가 : 미상(민중의 공동작, 적층 문학)
- 연대 : 미상(未詳)이나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로 추정됨
- 형성 : 근원 설화→판소리 사설(→판소리계 소설(홍보전)→신소설(이해조의 '연의 각'))
- 근원설화: 방이설화(旁?說話), 박타는 처녀 설화, 동물 보은 설화
- 이칭 : '흥부가, 박타령'
- 배경
 - ① 시간적 배경- 조선 후기
 - ② 공간적 배경-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 여름
 - ③ 사상-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 유교사상(형제간의 우애)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희극적, 풍자적, 평민적. 해학적, 교훈적
- 문체 : 가사체(3?4조, 4?4조 바탕), 율문체, 만연체
- 판소리의 계통 : 동편제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뿔

■ 갈등 (빈농층과 반사회적 지주층 간의 갈등)

★ **갈등 구조** : 홍보가의 기본 갈등 구조는 홍보로 대표되는 농촌 빈민층과 놀보로 대표되는 반사회적 지주층과의 갈등이다. 홍보가 놀보에게 쫓겨난 것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놀보에게 빼앗겼음을 의미한다. 이는 빈농과 부농으로 농민층이 분해되고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당시의 사회가 공동 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환됨에 동반된 현상으로 홍보가는 당시의 농민 현실을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표면적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이고 **이면적 주제**는 신흥 부농과 유랑 빈농 사이에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

■ 인물

- ① 흥보: 농토가 없는 농촌 빈민이지만 선량하고 정직하며 우애와 신의가 있는 인물
- ② 흥보 처: 흥보처럼 선량하나 현실인식이 더 빠르고 고난을 억척스럽게 이겨 내고자하는 인물
- ③ 놀부: 부를 축적한 농민이자 수전노,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악인의 전형

■ 특징

- ① 3·4조나 4·4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다
- ② 양반의 품위 있는 한문투와 서민들의 비속한 표현이 뒤섞여 있다.
- ③ 일상어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다.
- ④ 판소리 중에서도 서민적 취향이 가장 강한 작품
- ⑤ 조선 후기 몰락하는 양반과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⑥ 동일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 등을 통해 강한 리듬감을 조성하는 운문이 중심이나 부분적으로 산문도 보임.
- ⑦ 생생한 구어(口語)를 사용하고 있고,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⑧ 생략과 시간적 비약을 통해 사건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 ⑨ '가난 타령', '박타령', '돈타령' 등 삽입 가요가 많이 들어 있다.
- ⑩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개입하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보인다.
- ⑩ 대조, 과장하는 수법을 통해 해학적 골계미를 풍부하게 표현함

★ **운율적 특성**

- ① 4. 4조 자수율의 사용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 쓰기의 매였는가?"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 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자집의 가 팔어다 목숨 보명 살아나자."
"툭 소리를 어서 맞소."
"툭 소리를 맞자 헛들 배가 고파 못 맞겠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 띠를 졸라매고 기운차게 당겨 주소.”

②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식삭 시르렁 시르렁 실근 실근 식삭
실근 실근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삭 식삭”

★ 압축적 표현의 특성

① 서술어의 생략을 통한 압축적 표현

“박을 툇 타 놓고 보니 박통 속이 휘영.”

“괘를 찰칵찰칵, 번쩍 떠들러 놓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한 귀가 수북.”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한 압축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달아 오는데 북채만, 또 수일이 되더니
홍두깨만, 지동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마는, 박 잎사귀 샷갓만씩 하
야 가지고”

★ 작품에 나타난 이야기하기 유형의 특성

① 이 작품 역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르는 일의 경과를 보여 준다.
홍보가 박씨를 심는다. → 박이 무럭무럭 자란다. → 추석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자 박을 탄다. → 박 속에서 귀 두 짝이 나온다. → 귀를
열어 보니 돈과 쌀이 나오고 그것을 비워도 다시 채워진다. → 홍보
가 기뻐하며 형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한다.

② 인물간의 갈등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이야기하기 유형의 특성을 지닌다. 작품 전체에서 홍보와 놀
보 간의 갈등이 작품 전개를 주동하며, 교과서 수록 부분의 경우, 홍
보와 홍보 마누라 간의 갈등이 등장한다. 추석이 되어 가난타령을 하
는 홍보 마누라와 그것을 말리는 홍보 간의 갈등이 그것인데, 이로
인해 박을 타는 계기가 마련된다.

③ 이 이야기의 주된 사건은 단지 두 인물(홍보와 놀보) 간의 대립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토지를 상실한 빈농층과 반사회적인 지주층간의
대립이라는 의미로 확산된다.

★ 작품에 나타난 보여주기 유형의 특성

⇒ 판소리는 문학이기 이전에 공연 예술에 속한다. 그래서 창자가 소
리를 할 때 일정한 동작이 곁들여진다. 특히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홍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자체로 연극적 요소가 된다. 또한,
창자의 동작만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도 보여주기 유형의 요소가 삼
입되어 있다. 교과서 수록 부분의 경우 사건 진행의 많은 부분이 홍
보와 홍보 마누라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특히,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
어지는 경우, 그것은 인물간의 대화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박씨를
심는 장면, 박에서 나온 귀를 열어 보는 장면 등에서 홍보와 홍보 마
누라의 대화가 연극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이 이 작품에 나타난
보여주기 유형의 특성이다.

★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홍보의 가난’과 ‘보은(報恩) 박’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의미

■ ‘홍보의 가난’ 이야기의 의미

⇒ 홍보는 가난한 반면 놀보는 부유하다. 가난과 부유함 사이의 모순
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한동안 홍보는 생활 의지도 없는 무능한 인
물형이며 놀보야말로 근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형이라는 해석
이 내려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물질주의적 사고를 반영한 해석에 불과하다. 사실 홍보는 놀보와 형
제이므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도 홍보는 놀보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쫓겨났으며, ‘밤낮으로 일을 해도’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지경
에 처해 있다. 이처럼 홍보의 가난은 놀보와 같은 인간의 욕심에 따

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금의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홍보의 가난’ 이야기는 이처럼 부의 분배
를 둘러싼 불평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해 주는 이면적 의미
를 지닌다.

■ ‘보은(報恩) 박’ 이야기의 의미

⇒ ‘보은’을 주제로 한 다른 많은 이야기들처럼, 홍보가에서의 ‘보은
박’ 이야기도 우선 ‘선한 일을 하면 은혜가 되돌아오게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런 보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더욱이 홍보와
같은 황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까. 그러나 ‘홍보
가’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정은 달라진다. 가령, 홍보
가 사람이 아닌 제비를 통해 보답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선한
일에 보답이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일에는 보답이 따라야 ‘마
땅하다’는 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비는 하늘이나 신
혹은 ‘가난하지만 선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매개물이 될
것이다.

★ ‘홍부전’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홍부전’의 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선량한 자는 복을 받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죄를 받으니, 사
람은 선량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과의 논리로 계속 역설
되어 있는 표면적 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다 포괄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주제를 지니고 있으니, 이를 이면적 주제라 한다면,
천부(賤富)의 대두로 가난해진 양반과 모든 기존 관념이 얼마나 심각
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 이면적 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면적 주제는 아직 미숙한 상반의 논리로 표현되어
있기에 쉽게 판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면적 주제는 문제의 제기인 동시에 해결이며, 오히려 해결 쪽에 더
역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면적 주제는 문제를 문제로서 제기하
는 데 그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결은 내포하지 않고 있
다. 그렇다고 해서 이면적 주제가 주제로서 성립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두 가지 논리가 작품에서 서로 무관하게 공존할 수 없었듯이,
두 가지 주제도 서로 상당히 얽혀 있기는 하나, 분명히 서로 다투고
있다. 만약 표면적 주제가 진실이라면 이면적 주제는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이면적 주제가 진실이라면 표면적 주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표면적 주제는 도덕률, 특히 유교 도덕률을 대변하는 것
이라면, 이면적 주제는 이와는 어긋나는 평민적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에서 나왔다 할 수 있으니, 두 주제의 싸움은 작품 속에서 우
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우세한 쪽은 이면적 주제이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서 이미 선량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 사실상 무력해진 것을, 홍보
의 주린 염치가 헛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계의 관
점이 지닌 표현의 강도에서도 이면적 주제가 더 큰 설득력을 지니고
결과적으로 우세하다.

■ 글의 구조

<p>앞부분</p>	<p>놀보에게 쫓겨나는 흥보 흥보네의 고생스러움과 흥부의 수난(전개) 흥보의 선행과 제비의 보은(전환)</p>		
<p>절정</p>	<p>가난한 흥보에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p>	<p>① 제비가 물어 온 박씨를 흥보가 심음 ② 흥보 아내가 가난한 집안 형편을 탄식함 - 가난 타령</p>	<p>아니리 진양</p>
	<p>박을 타는 흥보</p>	<p>③ 흥보 아내를 달래며 박을 타자고 함- 박타령 ④ 흥보가 박을 탈 준비를 함 ⑤ 흥보가 아내와 소리를 주고받으며 박을 탐 - 박타령</p>	<p>жат은몰이 아니리 진양 휘몰이</p>
	<p>박 속에서 쏟아지는 쌀과 돈</p>	<p>⑥ 흥보가 박타령 끝을 바쁘게 몰아가며 부름 ⑦ 흥보가 첫 박을 타니 귀속에 쌀과 돈이 들어있음 ⑧ 박통 속의 귀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쌀과 돈을 흥보가 정신없이 퍼냄 ⑨ 흥보가 귀속에서 나온 쌀과 돈을 헤아림 ⑩ 흥보가 박 속에서 나온 돈꾸러미를 들고 흥을 냄 - 돈타령</p>	<p>아니리 жат은휘몰이 아니리 중중모리</p>
<p>뒷부분</p>	<p>흥보가 박 속에서 나온 온갖 것으로 부자가 됨. 놀보의 악행과 제비의 보복. 놀보가 박에서 나온 것들로 곤욕을 치름. 형제간의 우애 회복.</p>		

◎ 장구 장단

1) 진양조 장단

전라도 사투리로 '긴 것'을 '진'으로 발음하는 데서 이름지어 졌다. 즉 '긴 조'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속도가 몹시 느리며 유장한 분위기의 장단이다. 삼분박을 내포하고 있는 한박자 짜리가 24박자를 진행했을 때 한 장단을 이룬다.

(빠르기 J . = 35)

2) 중모리 장단

진양조 보다 빠른 속도로 모는 장단이지만 여전히 느린 속도의 장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4분음 12박자로 구성된다.

(빠르기 J = 85)

3) 중중모리 장단

중모리를 조금 더 빠르게 연주하는 장단으로서 8분음 12박자로 구성된다.

(빠르기 J . = 90~96)

4) 자진모리 장단

자진은 'жат은'의 뜻으로 시간상의 간격이 좁아져서 빠른 속도로 변화될 때 흔히 나오는 장단이다.

(빠르기 J . = 100~144)

중중모리와 같은 형식의 장단이나 보다 빠르고 자유롭게 진행된다. '군밤타령'과 같이 빠르며 경쾌한 곡들에 사용되는 장단이다.

5) 휘모리 장단

휘몰아 치는 느낌의 뜻이며 이 장단은 일반적으로 한국 민속 음악의 장단중 가장 빠른 장단이다. 느리게 치면 4박자, 빠르게 치면 2박자로 한 장단이 구성된다.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라. 의복이라 허는 것은 떨어지면은 지어 입제,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한번 아차 죽고 보면, 조선 팔도 너룬 곳에 얼굴인 들 다시 보겠느냐? 나 혼자 탈란다, 타지 마라.

<아나리> 흥보 마누래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 말을 듣고 보니, 내 잘못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번만 용서하오. 흥보가 비석이 웃으면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같이 얌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렇고 말고! 다시 그리 말 어야제. 우리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타 보세.

- * 생살지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 석송, 도주공: 중국의 큰 부자.
- * 기민(飢民): 굶주린 백성.
- *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 * 권숙: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 * 께: 옷.
- *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출제요소

송사소설과 우화적 특징을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황새결승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조선 후기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부자와 그 친척간의 재산을 둘러싼 송사가 전개되면서, 그 속에 우화 "황새결승"이 들어가 있는 액자 구조로된 우화 소설이다. 액자 안의 따오기는 액자 밖의 친척에 상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수를 쓰는 악인형 인간형을 제시한다. 다만 액자 안의 따오기가 "최고의 노래 솜씨"라는 자부심, 즉 명예를 위해 교섭을 벌인 반면, 액자 밖의 친척은 "돈"에 대한 몰욕에서 송사에 청탁을 넣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동물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목소리'라는 자부심과 명예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대치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의 맹아가 움트기 시작하면서, 명예를 지키는 가난한 사대부보다 돈을 많이 모은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존경을 받던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핵심 정리

■ 배경: 시간-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음 & 공간-경상도 지역

■ 주제

- * 부정부패를 일삼는 인간 사회 풍자
- * 뇌물에 의해 조종되는 송사의 불공정성 풍자

■ 특징

- * 날짐승들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함
- * 날짐승들의 법정 싸움을 내용으로 함
- * 날짐승들을 통해 인간 사회의 간계와 지배층의 부패를 보여줌
- *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 등장인물

- * 친척: 패악무도한 짓을 일삼으며 간계를 부리는 자
→ 따오기: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자
- * 관리: 뇌물을 받아 판결을 공정히 처리하지 않는 자
→ 황새: 따오기에게서 뇌물을 받고 따오기 편을 드는 자

★ ★ 액자 밖의 현실과 액자 속의 우화가 대응

★ 액자 밖의 현실

- ① 경상도의 한 부자가 패악무도한 친척과 재산 다툼
- ② 부자가 서울에 올라와 형조에 의뢰해 송사를 벌인다.
- ③ 친척이 관리에게 뇌물을 써 송사에서 이긴다.

★ 액자 속의 우화

- ① 꾀꼬리, 삐국새, 따오기가 목소리 다툼
- ② 세 짐승이 함께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벌인다.

③ 가장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은 따오기가 황새에게 뇌물을 써서 상성에 뽑힌다.

★ ★ 사건 구조

- ★ 외화. 1: 부자와 친척의 재산 다툼→뇌물공여로 친척이 승소
- ★ 내화: 꾀꼬리, 삐국새, 따오기의 아름다운 소리 다툼→뇌물공여로 따오기가 승소
- ★ 외화. 2: 부자의 이야기(내화)를 듣고 관원들이 부끄러워함

■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먼 일가 친척중 악한 하나가 재산의 반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악한은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자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우화 하나를 관원들에게 들려주었다. 꾀꼬리, 삐국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한다. 그런데 황새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따오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낫다고 판결한다.

부자가 이야기를 통해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관리들을 비꼬니 형조관원들이 부끄러워하였다

[본문해설]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대대 부자로 1년 추수가 만석 **<만 가마>**에 지나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無量大福) **<큰 복>**을 가히 알지라. 일생 가산<재산>이 풍부<풍족>하여 그럴 것 없으며 **<아쉬울 것이 없으며>** 이웃 사람이 송덕(頌德) **<덕을 기림, 성격을 칭찬함>** 아니 하는 이 없더라. 그 중 일가에 **<친척 중에>** 한 패악무도(悖惡無道)한 놈 **<아주 나쁜 놈>**이 있어 불분동서(不分東西)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리표박(流離漂泊)하여 **<유랑, 떠돌이 삶>** 다니더니 일일은 **<하루는>** 홀연 **<갑자기>** 이르러 **<부자 집에 도착해>** 구박하여 가로되, **<말하길>**

“너희는 종이 잘 사는구나. 너 잘 사는 것이 도시 조상전래지물(祖上傳來之物)이니 우리 서로 동고조자손(同高祖子孫)으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리오. 이제 그 재물을 받을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종야(終夜)토록 광언망설(狂言妄說)을 무수히 하며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거동을 보고 그 놈의 몫쓸 심사를 **<마음>** 헤아리매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가로되,

“그 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감영(監營)에 **<관가>** 의송 **<議送, 백성이 고을 원에게 패송(敗訟)당하고 다시 관찰사(觀察使)에 상소(上訴)하는 일>**을 하거나 하여 다시 이런 일

없게 함이 좋을까 하노라.”

하니,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웬이 여겨 가로되,

“이 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할지라, 서울 올라가 형조(刑曹)를 정하여 후환을 없게 하리라.” <이 놈은 지방 관가의 명으로는 쉽게 수공하지 않을 놈이니 서울 검찰청으로 가서 고발을 하겠다>

하고, 그 놈을 이끌고 함께 서울로 올라오니라.

관원 <조정 간부>이 그 원정을 자세히 보고 서리(胥吏)에게 <말단 벼슬아치> 분부하여,

“일후 좌기시 <座起時, 관청의 우두머리가 사진(仕進)하여 일을 봄>에 처결하리라.”

하고 아직 추월(推闕, 죄인을 심문함)치 못하더니,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座起)되지만 기다리며 그 사이 서리나 찾아보고 낚 <김새,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얻을 일로되, 제 이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건디지 못하여 그 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 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虛浪無道) <헛되이 막 돌아다녀>하여 시속 <세상> 물정을 아는지라. 이 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한편으로>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길을 뚫어 당상(堂上)이며 낭청(郎廳, 조선시대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의 총칭)이며 서리(胥吏) 사령(使令)까지 꺾으니, <여러 관리를 포섭했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없이 이기노니, 이는 이른바 녹피(鹿皮)에 갈알자(주건없이 남의 말에 붙좃거나 일이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는 형편을 가리키는 말)를 씀이라. 아무튼 좌기(座起) <재판> 날을 당하여 당상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고 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죽 벌여서 앉고 서리 등은 뒷마루에서 명을 받드는데,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 <말단 관리>에게 분부하여, “양측을 불러 들이라.”

하고 계단 아래에 꿇이며 분부하되,

“네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네 자수성가(自手成家)를 하여도 가난한 친척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출 <도와야>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상의 가업 <가문의 사업>을 가지고 대대로 재산을 쌓아 만석꾼 <큰 부자>에 이르니 죽히 흥년에 이른 백성을 진휼(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줌)도 하거든, 너의 지친(至親) <가까운 친척>을 구제치 <도와주지> 아니하고 송사 <소송을 걸어>를 하여 물리치려하니 너같이 무리한 놈 <나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에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라. 네 소행 <행동>를 헤아리면 응당 죄를 물어 벌을 주어야 할 것이로되 십분 안서(安徐, 잠시 보류함)하여 송사만 지게 하고 내치노니 네게는 이런 상덕(上德, 웃어른에게 받는 은덕)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하는 대로 나눠 주고 친척간 서로 의를 샅치 말라.”

하도 다시 일어서 섬들 <디딤돌> 아래 가까이 앉으며 고하여 <아뢰어> 가로되,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움거니와 들음 직한 이야기 한 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노이다.”

그 부자 그제야 잔 기침을 하며 말을 내어 왈,

“옛적에 피꼬리와 뺨꼭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송사의 핵심 쟁점>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

치 못하였더니 일일은 피꼬리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하니, 그 중 한 짐승이 이르되,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 크고 부리 길고 몸집이 어방져워 통량이 있으며 법사를 <모든 일>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장군이러 하노니, 우리 그 황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뇨.’

세 짐승이 웬이 여겨 그리로 완정(完定, 완전히 정함)하며 그 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울음소리는 안 좋으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 없는지라. 옛 사람이 이르되 모사(某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 일을 힘써 피함은 사람에 달렸으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렸음)이라 하였으니 아뭇커나 청축(請囑, 청을 넣어 위촉함)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로다.’

(중략)

피꼬리 부끄러워하며 물러나올새 뺨꼭새 또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소인은 녹수천산(綠水千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되며 구름 걷어 다기봉하니 별건곤이 생겼는데 만장포포 흘러내려 수정령을 드리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섬겨온 이내 소리 만첩산중에 가끔성이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나의 울음소리가 좋은 정치에 어울리는 노랫소리가 된다. 따라서 누구나 나의 울음소리를 반긴다.>

황새 듣고 또 제사하여 <판결하여> 이르되, <말하되>

‘월낙자규제(月落子規啼)하니 초국천일애(楚國千里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쇠락(灑落)하나 심분 궁수(窮愁, 곤궁(困窮)을 겪는 근심)하니 전정을 생각하면 가히 불쌍하다.’

하니 뺨꼭새 또한 부끄러워하여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고 하며 차마 남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낮추어 한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윽고 달리 풀쳐 고하을 일 <따로 울음소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일> 없사오니 사도 처분만 바라고 이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문득 듣고 두 무릎을 탕탕치며 좋아하여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재(壯哉)로다. <훌륭한 일이다> 음아질타에 천인이 자폐(自斃, 자살)함은 옛날 항장군의 위풍이요 장판고 다리 위에 백만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네 목소리 옛날 삼국지의 장비처럼 웅장해서 좋다.>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가장 높은 점수를 주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오결하여 <판결을 잘못해> 그놈을 개야들 개자식이라 하고 우셨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관원(刑曹官員) <검찰청 관리들>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 미상, <황새결승(決訟)> -

심청전

[핵심정리]

- ▶ 작가 : 모름(민중의 공동작)
- ▶ 연대 : 모름(18세기 이후)
- ▶ 갈래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 구조 : 비극과 희극의 대칭적 구조
- ▶ 표현 : 비장미와 승고미, 해학미의 조화
- ▶ 주제 : 지극한 효성, 자기 희생의 가치와 의미
- ▶ 출전 : 완판본 <춘향전>

[줄거리 이해]

영락한 양반 심학규가 소경이 되어 곱씨 부인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곱씨 부인이 산천에 빌어 심청이란 딸을 낳은 지 7일만에 죽자, 심봉사가 동냥젖을 얻어먹여 키웠다. 심청이 15세에 이르러 스스로 밥을 동냥하여 아버지를 봉양하며 효성이 지극했다. 심청이 장 승상 댁에 간 사이, 심 봉사가 개천 물에 빠졌다가 몽은사 승려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부처님께 쌀 삼백 석을 공양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심 봉사는 시주를 약속한다. 심청은 아버지가 약속한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인당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판다. 심청은 제물로 인당수에 빠졌으나, 용왕은 상제의 명으로 그녀를 용궁하게 대접한 뒤 연꽃에 싸서 인당수 물 위로 다시 내보낸다.

심청이 떠난 뒤, 심봉사는 뽕덕어미라는 행실 나쁜 여자와 방탕하게 살아간다.

남경 상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에 떠 있는 연꽃을 건져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가 연꽃을 열고 환생한 심청을 황후로 삼는다. 심 황후는 부친을 찾으려고 맹인 잔치를 베풀어 전국의 맹인을 초대한다. 심 봉사도 뽕덕어미가 도망하는 등 어려움 겪은 끝에 황성에 도착한다. 심 봉사 부녀가 만나게 되고, 그 반가움에 심 봉사는 눈을 뜬 다음 딸과 더불어 부귀 영화를 누린다.

[구성의 이해]

- (1) 영락한 양반 심학규가 소경이 되어 곱씨 부인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 (2) 곱씨 부인이 산천에 빌어 심청이란 딸을 낳은지 7일만에 죽자, 심 봉사가 동냥젖을 얻어 먹여 키웠다.
- (3) 심청이 15세에 이르러 스스로 밥을 동냥하여 아버지를 봉양하며 효성이 지극했다.
- (4) 심청이 장 승상 댁에 간 사이, 심 봉사가 개천 물에 빠졌다가 몽은사 승려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 (5) 부처님께 쌀 삼백 석을 공양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심 봉사는 시주를 약속한다.
- (6) 심청은 아버지가 약속한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인당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판다.
- (7) 심청은 제물로 인당수에 빠졌으나, 용왕은 상제의 명으로 그녀를 용궁하게 대접한 뒤 연꽃에 싸서 인당수 물위로 다시 내보낸다.

(8) 심청이 떠난 뒤, 심 봉사는 뽕덕어미라는 행실 나쁜 여자와 방탕하게 살아간다.

(9) 남경 상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에 떠 있는 연꽃을 건져 황제에게 바친다.

(10) 황제가 연꽃을 열고 환생한 심청을 황후로 삼는다.

(11) 심 황후는 부친을 찾으려고 맹인 잔치를 베풀어 전국의 맹인을 초대한다.

(12) 심 봉사도 뽕덕어미가 도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황성에 도착한다.

(13) 심 봉사 부녀가 만나게 되고, 그 반가움에 심 봉사는 눈을 뜬 다음 딸과 더불어 부귀 영화를 누린다.

▶ 구성상 특징

이 작품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전반부와 환상의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후반부로 구분된다. 가난한 심 봉사의 외딸 심청의 지극한 효성과 아버지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은 전반부의 중심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는 사회 윤리적인 가치가 중심축에 놓여 있다. 물론,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티프는 인신 공희(人身供犧)이다. 후반부는 심청의 환생과 함께 심 봉사가 광명을 얻는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거타지, 인신공희, 맹인 득안 등의 전래한 설화를 창극화한 판소리를 다시 소설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은 적층적(積層的 : 민중에 의해 첨삭되는 것) 성격을 갖추면서 발달해 온 것이 특징이다.

심청전은 희곡적으로 결구되어 전반부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의 제수(祭需)가 될 때까지이며, 후반은 황생하여 왕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다시 눈을 떠서 행복하게 살 때까지인데, 이는 불교의 인과 응보 사상에도 유교의 효, 도교의 신선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조가 '강상연'이라는 신소설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불공에 따른 극락왕생 또는 불교적 재의(齋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심청의 효를 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효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주제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작품 중에는 당시 하층민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가치관의 소멸로 평범한 의미의 효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즉,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나 심청은 효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심화 자료]

(1) <심청전>의 구조

이 작품은 심청이 희생물로 인당수에 투신한 사건을 중심축으로 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의 상황이 상대적이다. 이런 구조를 대칭적 구조라 한다. 전반부에서 심청은 현실적, 세속적 분위기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부친과 이별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심청은 환상적, 초현실적 분위기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살면서 부친과 상봉하는 행복한 인물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짐으로써 성취된 것인

데, 심청의 투신은 세속적 인간의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심청은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고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곰이 웅녀로 다시 태어나 환웅과 혼인한 것처럼,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한 것은, 어른으로 재생하여 혼례를 치르기 위한 통과 제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심청의 구실

심청의 투신은 부친의 개안(開眼)을 위한 효심(孝心)에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친보다 먼저 죽는 불효가 되었다. 효로써 불효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그녀의 재생에 의해 극복된다. 심청의 재생은 신분의 상승과 아울러 부친의 상봉과 개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심청은 자기 희생과 재생을 통하여, 남경 선인들에게는 풍량에 대한 근심을, 황제에게는 황후를 잃은 슬픔을, 맹인들에게는 앞 못 보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었다. 즉, 심청은 고귀한 신분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和解者)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미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재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심청의 이러한 신분 변화는 당대 민중들의 계층적 갈등 해소에 대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3) <심청전>의 주제

<심청전>의 주제를 단순히 심청의 효행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심청의 희생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도 고귀한 지위에 오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심 봉사가 원래부터 맹인은 아니었다. 누대(累代) 명문가로서 가세(家勢)의 영락(零落)과 더불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심 봉사의 안맹은 단순한 시각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제의 동요와 붕괴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한 무능하고 빈곤한 계층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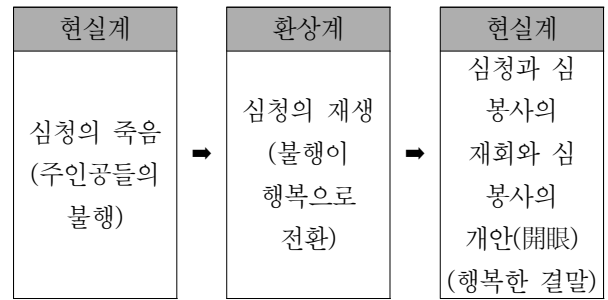
어쨌든 심청의 효행의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 신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며, <심청전>의 주제도 '자기 희생의 가치와 의미'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청전>의 근원 설화

<심청전>의 내용상 근원 설화는 심 봉사의 개안(開眼)과 관련된 개안 설화, 선인들의 제의(祭儀)와 관련된 인신 공회 설화, 심청의 혼인과 관련된 영웅 설화, 그리고 효행 설화가 그 핵심이다. 심청전은 이 설화들이 하나고 합해져 형성된 작품이다. 또, <심청전>과 관련된 문헌상 설화로는 '효녀 지은'과 '거타지 설화'가 있다. 심청의 출생 과정에 보이는 선녀의 적강(謫降), 기아(棄兒) 화소로 볼 수 있는 곱씨 부인의 죽음, 고귀한 신분과 심청의 결혼 등에 근거하여 심청의 여성 영웅적 모습을 알 수 있다.

(5) 「심청전」의 서사 구조

이 작품의 서사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실 - 비현실 - 현실'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순환의 구조는 주인공 심청과 심 봉사의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용궁'이라는 비현실적 환상계는 주인공의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또한 이야기 구조에 현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계를 삽입하여 새로운 세계, 이상 세계에 대한 독자(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이야기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본문해설]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부친의 눈이 뜨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사꾼들과 인신공양에 대해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남경 장사 선인(船人)<갯사람>으로 인당수에 지나갈 제, 십오 세 되는 처자를 사서 제물로 물에 넣사오면 무변대해(無邊大海) * 에 무사히 왕래하고 십수만금을 대퇴(大堆) * 내기로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하오.”

심청이 반겨 듣고 그제야 담 안에 비겨 서서 **애연(哀然)히<애처롭게>** 하는 말이,

“나는 본(本)이 **촌(村)사람으로<시골>** 우리 부친 **안맹(眼盲)하여<눈이 밝>** 평생에 **원(冤)이<한탄>** 되옵는데 **공양미 삼백 석<가마>**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생전에 눈이 밝아 천지만물 보리라 하되 가세가 철빈(鐵貧) * 하여주선할 수 없사와 이 몸을 팔려 하나이다.<부처님께 쌀을 바치면 아버지 눈이 뜨는데 짐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내 몸을 팔겠다.>**

선인들이 그 말 듣고, / “남자의 지극한 효성이라.” / 하고,

“저희 일이 긴급하여 **백미(白米)<흰 쌀>** 삼백 석을 보은사로 올린 후에 행선 날은 **내월(來月)<다음 달>** 십오 일이오니 그리 알고 계시오면 자연 가실 날을 당하리이다.”

선인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의 지극한 정성이 구천에 사무쳐서 용왕님이 감동하도다.”

하며 못내 칭찬할 제, 심청이 부친께 여쭙오되,

“공양미 삼백 석을 겨우 **주선하여<마련하여>** 보은사로 올려 보냈나이다.” / 심 봉사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주선하였느냐?”

출천지효(出天之孝) * 심청이가 제 부친을 속이라마는 잠간 속여 여쭙오되,

“무릉촌 장 승상 덕 부인이 **수양딸<양녀>** 삼으려 하시기에 차마 허락하지 못하였더니 지금 **사세(事勢)<상황>** 난처하여 **연유<이유>**를 여쭙은즉 두말아니 하고 주시기에 수양딸로 팔렸나이다.”

심 봉사 좋아라고,

“그 부인 장하시도다.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구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 팔린다는 말이 괴이하나 장 승상 덕의 수양녀로 팔리는 거야 관계하라. 언제 오라 하시더냐?”

심청이 대답하되,

“내월(來月) 망일(望日) * 에 가기로 하였사오이다.”

봉사 거동<행동> 보소. / “허허, 그 일 잘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간간히 생각하니 눈 어두운 부친 **영결하고<영원히 헤어지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십오 세 겨우 살고 죽을 일이 기가 막혀 아무 일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밥을 안 먹고>** **수심(愁心)<근심>**으로 지내다가 다시 생각하되,

‘엷지른 물이요, 쏜 활이라.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리하여 못 가졌다. 내 아직 죽기 전에 부친의 의복을 짓는 일이나 마지막까지 다하리라.’

하고 상침(上針) * 겹것 하절 의복 푸새 * 하여 다려 놓고 핫저고리, 핫바지, 토시, 버선이며 큰옷, 상착(常着) * 을 손질하여 넣고 갓망건 새 로 꾸며 끈을 달아 벽에 걸고 곰곰이 앉아 생각하니,

‘어찌 아니 한심할까. 소방산(小方山)에 있는 우리 모친 전(前)에 가서 하직조차 아니 할까.’

저녁밥 열린 지어 부친께 올린 후에 속여 여쭙오되,

“건넌마을 이 동지 댁에서 부르시니 잠깐 다녀오리다. 그사이 기다리시지 마시고 잠이나 안녕히 주무시오.”

심 봉사 이른 말이, / “잠깐 다녀오라.”

이때는 이경 초(二更初) 삼경 말(三更末) * 이라. 월색은 침침하고 시냇물은 잔잔한데 소방산 돌아오니 북망산(北望山) 누누중총(纍纍塚) * 에 자손 없는 무덤이 허다한데,

“어느 묘가 우리 모친 산소인고?”

찾아 찾아 들어가서 광 씨 묘 전(前)에 가서 합장 재배하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말이,

“애고애고, 어마님아. **불초녀(不肖女)<불효녀>** 심청이 왔나이다.”

가슴을 땡땡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어마님. 잠이 깊이 들어서 심청이 오는 줄 모르시오? 앞 못 보는 우리 부친을 버려두고 무주공산(無主空山) **풍우<빈 산 비바람>**

중에 홀로 누워 계시니까? 썩대로 **울<울타리>**을 삼고 잔디로 집을

삼아 벗 없이 누우셨으니 이것이 웬일이요?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내 **경상(景狀)<상황>** 살펴보옵소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앞 못 보는 우리

부친 품에 자라나서 가련한 나의 신세 남의 밤을 빌어다가 앞 못 보는 부친 공양하옵더니 보은사 화주승이 이른 말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 말년에 **영화를 보리라<행복한 삶을 살리라>** 하옵기로 남경 장사 선인들께 백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우고 인당수

풍랑 증으로 죽으러 가오니 심청이 죽사오면 눈 어두운 우리 부친 누라서 공양하오며 소방산 풍우 중에 있는 우리 모친 **묘하(墓下)에<묘지>** 뉘 다시 찾아오며 무덤에 있는 풀을 누라 뜯어 주며 연구세심(年久

歲深) * 하여 **봉분이 퇴락한들<무덤이 낡은 들>** 누라서 우리 모친 백골 거두어 줄꼬? 나 하나 죽어지면 믿을 이 없는 우리 부친과 가련하게

돌아가신 우리 모친 어이하잔 말고. 애고애고 설운지고. 강남 선인의 행선 날이 머지 아니하기로 모친 전에 영영 하직차로 왔나이다.”

아무리 애통한들 죽은 모친 대답할까. **슬피 통곡하니 강산초목이 다 설워하는 듯하고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더라. <산과 해와 달도 함께 슬퍼하는 듯 하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심청은 아버지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남경 장사 선인들과 함께 인당수에 도착한다.

이곳은 사람 많이 죽은 곳이라. 층층한 저 물방울이 울렁울렁 뒤누우니 두 눈이 감감하고 천지(天地)가 빙빙 돌아 정신없이 주저앉아 뱃전을 잡고 벌렁벌렁 떠니 그 거동은 사람이 못 보겠더라. 다시 벌떡 일어선,

“**허허, 내가 불초(不肖)로다. 부모를 위하면서 두 마음이 웬 일이여?**” <마상 아버지를 위해 죽으려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두 눈을 감고 치맛자락 무릅쓰고 층층 걸음 급히 걸어 창해에 몸을 뛰어,

“아버님!”

한마디 부르더니 꺼꾸러져 물에 풍덩 떨어지니 가련하다. 심청의 연약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한 몸이 물에 빠져 이리령 출렁 간 데없도다.

이때에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전교하시되,<명령하시되>**

“내일 **오시(午時)<오전 11~13시>**에 출천지효 심청이가 물에 빠질 것이니 팔 선녀로 옹위(擁衛)하여<보살펴> 수정궁<궁전 이름>에 모셔 두고 착실히 호위하여 다시 **영(令)<명령>**을 기다려 인간으로 환송하라. 만일 영을 어기어 거행하는 자는 중벌을 당하리라.”

엄숙히 분부하니 사해용왕이 황겁하여 청태수군과 백만인갑이며 **<수많은 병졸>** 무수한시녀들로 **백옥교자를<좋은 가마> 등대하여<준비하여>** 오시를 기다리더니 과연 옥낭자 하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거늘 시녀로 고이 받들어 옥교자 안에 앉히니 심 낭자 정신이 황홀하여 사양하되,<거절하되>

“나는 **진세(塵世)의<속세>** 사람으로 어찌 **교자<가마>**에 감히 타오리까?”

선녀 등이 여쭙오되,

“옥황상제께서 분부 지엄하옵시니 만일 아니 타오시면 소녀 등이 천상중죄를 면치 못하겠나이다.”

* 무변대해 : 끝없이 넓은 바다.

* 대퇴 : ‘퇴금적옥(堆金積玉)’에서 유래. 돈이나 이익.

* 철빈 : 극도로 가난함.

* 출천지효 : 천성으로 타고난 지극한 효성.

* 망일 : 보름날.

* 상침 : 겹옷을 지을 때에 무명천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박아서 꿰매는 바느질.

* 푸새 : 옷 같은 데 풀을 먹이는 일.

* 상착 : 보통 때 늘 입는 옷.

* 이경 초 삼경 말 :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 누누중총 : 다닥다닥 잇달아 있는 많은 무덤들.

* 연구세심 : 세월이 매우 오래됨.